

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2
축사(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유승희·기동민)	4
특집 1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	
2018 문화가 있는 날 - 그날이 오다 독립, 그리고 평화의 날	10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 결국 그 벽을 넘는다	14
3·1운동 99주년 기념 만해로드 학술회의	
- 만해로드 대장정, 러시아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다녀오다	19
문화예술인 초대석	
성북을 그리다 - 정영 작가	29
성북구 문인의 연구자 - 김준현 성신여대 문화내러티브 교수	38
특집2 성북구의 월북예술인	
이념을 넘어 인간과 지역의 탐구로 - 성북구의 월북 문인들	47
성북공간 - 성북의 새로운 문화공간	
석관동 구 중앙정보부 강당	50
성북동 성북선잠박물관	54
2018년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이야기	
한국 근대조각의 선구자 김복진	60
구슬 같은 기억을 불러내는 언어 - 박완서 소설과 마을기록	
손기정 이야기	71
2018년 성북문화원 소식	
2018 일반회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 강원도 원주 - 천년 역사를 하루에 담다	77
2018 일반회원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강원도 철원 - 가을바람과 함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81
2018 외부 경연대회 수상 내역	85
2018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87
2018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94
2018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17
2018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19

『성북문화』 6호를 내며

매서운 한파와 유례없는 더위 속에서도 부지런히 달려왔던 2018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평화를 향한 일관된 노력이 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녹였던 한 해였습니다.

『성북문화』 6호에는 2018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이 걸어온 길과 그 속에서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성북문화원에게 2018년은 역사문화도시 성북의 착실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해였습니다. 성북구만의 고유한 색이 담긴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성북구의 문인과 미술가들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역사 인물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4·19혁명과 제2공화국’, ‘정전에서 종전으로, 그리고 평화로’, ‘결국 그 벽을 넘는다’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 그날이 오다 독립, 그리고 평화의 날’, ‘성북천 깃발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회회낙락’ 같은 사업에 보여준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 확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제2회 성북동 문화재 야행’,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축제 ‘끌어안암’, 그리고 음악극 ‘동거’는 성북동과 안암동을 지역 내 문화 주체간 협력의 장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세밑에는 한성대 캠퍼스타운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미술인들과 협력하여 성북문화원 옹벽의 도자벽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지만, 신철한 마을기록아카이브팀의 연구원들은 뛰어난 재능과 사명감으로 사업의 기초를 훌륭히 다져주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지역의 역사와 기록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이는 성북구 문화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성북문화원은 꾸준히 착실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한편 지역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3·1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구민들과 함께 성북구의 독립지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구민 모두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성북의 역사·전통·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기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곧 2019년 기해년의 해가 밝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쉽 없이 땀 흘리며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기해년 새해에는 희망찬 황금돼지의 기운을 담아 꿈꾸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북악산 중턱에서 바라본 성북구

축사



『성북문화』6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잡지의 발간으로 우리 구의 역사, 전통, 예술 발전을 위해 성북문화원이 해왔던 일들이 더 널리, 자세하게 알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 성북문화원이 주관했던 다채로운 사업들은 성북구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북동 문화재야행과 안암동 거리축제 ‘끌어안암’을 통해서 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함께 즐기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정전협정과 광복,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행사들을 통해서 는 구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양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강좌와 강연,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는 구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올해로 개원 22주년을 맞는 문화원을 보면서 문화원의 쉼 새 없는 헌신과 도전으로 역사문화 도시 성북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올해 저는 현장 중심의 구정을 펼치면서 현장 속에서 성북구의 문화적 역량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성북문화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구민들과 함께 했던 문화원 식구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이 문화로 화합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문화원이 주민, 예술가, 대학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구민의 삶은 그만큼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성북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뜻깊은 결실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마주할 2019년에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제8대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때, 『성북문화』의 발간 소식을 듣고 새삼 문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가 아닐 리 없다”고 하였고,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문화의 힘만이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과 평화는 문화로부터 나옵니다. 문화 활동의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만 새로운 사상들이 싹트고 자라나 국민의 의식이 성장합니다. 그런 국민들만이 평화롭고 튼튼한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성북문화원은 지역 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이 있음으로 해서 성북구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우리 구민들은 성북구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 눈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이야기가 문화가 되고, 그런 문화가 행복과 평화의 토대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문화원 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께서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민들은 성북문화원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저는 성북문화원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성북구의회가 문화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힘을 합쳐 성북 문화의 위상을 높여 나갑시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축하의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임태근

축사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나간 날의 아쉬움과 새로운 날의 설렘이 맞물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북문화』의 소식이 가슴 한편을 따듯하게 채워주곤 합니다. 올해에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성북문화』 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성북문화원은 우리 문화의 숭고한 멋을 구민들과 나누고 즐기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탄탄한 지역학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사건과 문화자원을 음악, 연극, 뮤지컬, 문화제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등 성북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사업을 통해 사계절 내내 우리 곁을 지켜준 성북문화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는 봄볕에 되살아납니다. 성북문화원이 전하는 문화와 예술도 봄볕과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스러운 일상에 훈훈함과 여유를 불어넣어주는 성북문화원은 구민 곁에 열린 문화 공간으로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역사·문화·예술을 향한 성북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이 성북문화원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 6호와 함께 2018년을 되짚어보고, 새롭고 힘찬 2019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써주신 성북문화원 임직원 및 성북구 문화예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갑) 국회의원 유승희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큰 복과 풍요를 상징
하는 기해년입니다. 행복의 기운이 성북구민 모든 분들의 가
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의 대표 문화서적인 『성북문화』 6호의 출간을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자원 연구·조사 그
리고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성북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의 이육사 기념행사가 올해로 3회를 맞이했습
니다. 지난 11월에는 종암동에서 이육사 기념관 착공식도 있었습니다. 2015년 이육사 기념행사
첫 개최 이후 3년 동안,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이육사 선생님
이 종암동은 물론 성북구를 상징하는 대표 독립지사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모두가 합심하
여 이뤄낸 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의 역사·문화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성북구만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
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북구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장위·석관동 지역을 조사
해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성북구 일원으로서 그 내용은 물론, 성북문화원이 만들어 낼 장
위·석관동만의 다양한 콘텐츠도 무척 기대됩니다.

성북문화원이 성북의 대표 문화공간으로써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
시길 바랍니다. 저도 성북구 주민으로서 성북문화원과 성북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
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변함없이 맡은 바 역할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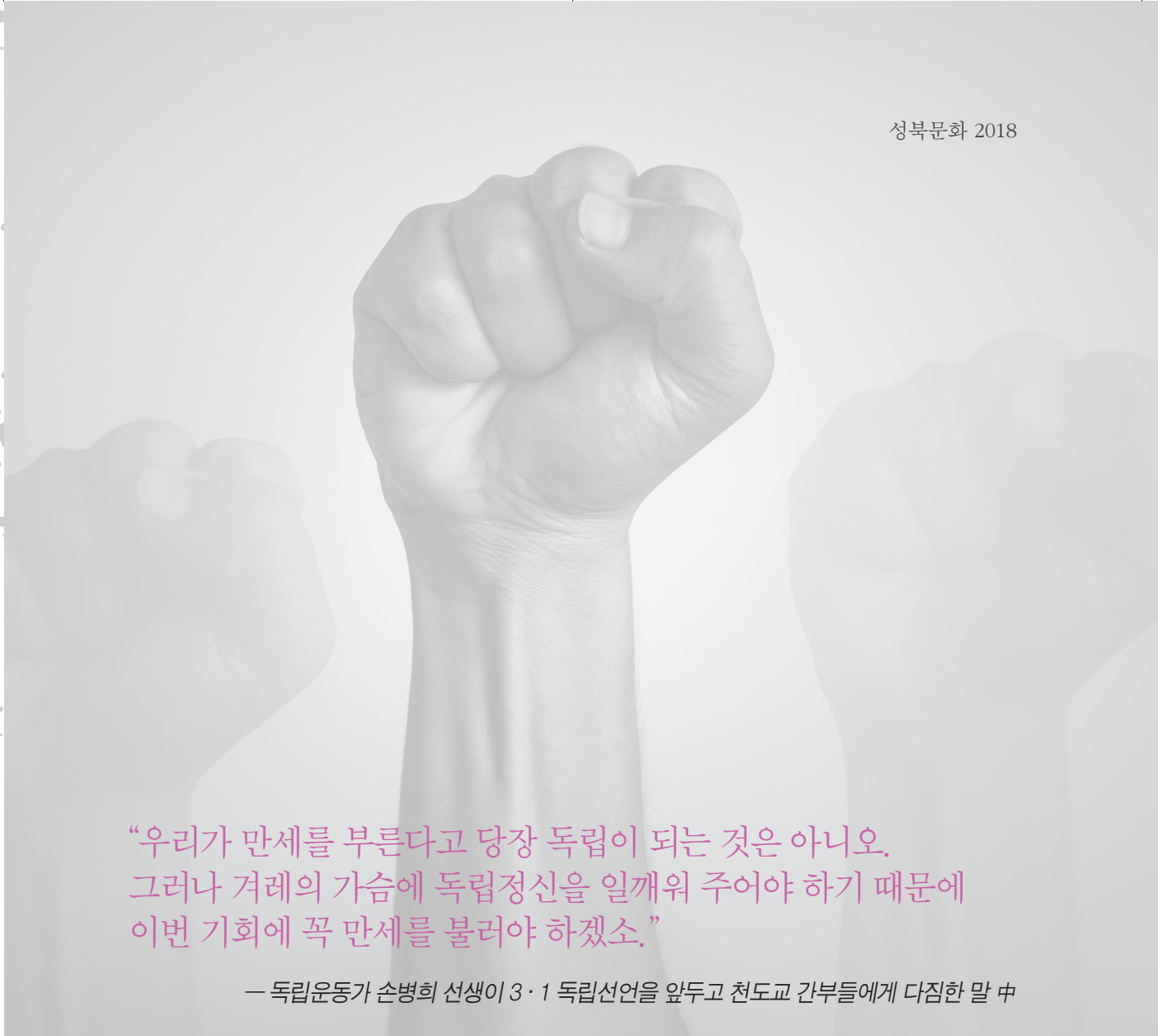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 여러분, 기해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
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북구(을) 국회의원 기동민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이 3·1 독립선언을 앞두고 천도교 간부들에게 다짐한 말 中

2019년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근대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3·1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2017년 성북구는 2017년 일제의 수형기록, 판결문, 신분장지문원지, 정보문서, 신문기사 등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총 113명의 성북구 독립운동가를 확인하고, 기존 발굴 독립유공자 외 96명을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성북구는 많은 독립운동가와 문화예술인이 남긴 유·무형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독립과 평화를 꿈꿨던, 그래서 희생당하고, 상처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성북문화원은 ‘문화가 있는 날-그날이 오다 독립, 그리고 평화의 날’,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3·1운동 99주년 기념 만해로드 학술회의’를 통해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해 보았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그날이 오다 독립, 그리고 평화의 날

정리_김정현(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1차 문화가 있는 날_ “성북의 두 시인, 두 독립운동가 한용운과 이육사”(2018.07.28)



‘지역의 독립운동가, 한용운과 이육사’ 주제로 역사문제연구소 한봉석 연구원, 성북문화원 박수진 운영과장, 백외준 성북학연구팀장이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성북구 대표 밴드 빈티지프랭키는 이날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육사의 '청포도' 등 독립운동가들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선보였다.



성북구의 대표 독립운동가 6명(한용운, 이육사, 이규창, 조소앙, 유유석, 장건상)의 안내문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2차 문화가 있는 날 각자의, 그리고 모두의 해방(2018.09.01)



설장구 공연



대금 연주



선소리산타령 공연



가락장구 공연

2차 문화가 있는 날은 '각자의, 그리고 모두의 해방'이란 주제로 열렸다.
성북천 바람마당에서 개최했으며 문화원 수강생들과 강사들의 공연이 있었다.



창작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과 그의 아내 이은숙 여사의 이야기이다.
동시에 그 가족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의 이야기이다.

3차 문화가 있는 날_ 평화의 날(2018.09.29)



3차 문화가 있는 날은 '평화의 날'이란 주제로 열렸다.
아트그룹 슈필렌은 성악공연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영웅', '애국가'를 들려주어 성북천의 밤을 가득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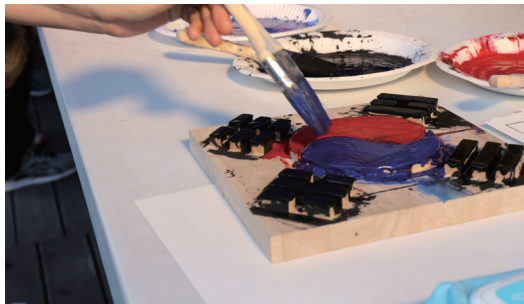


Maple 공연



성북천 분수마루를 가득 메운 관객들

성북천 분수마루를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함께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인 V2T와 Maple의 어쿠스틱 음악 공연도 있었다.



태극기 목판화 체험



안중근 의사 유묵 손도장 찍기 체험

특집 1 |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 2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글.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 연구원)

올해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지 73주년 되는 해이다. 성북구에서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보통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5주년, 10주년 단위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성북구의 경사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사였다.

성북구의 경사란 작년 8월,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 중 8명이 독립유공자로 새롭게 전부 포장을 받은 일이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성북구 출신이거나, 이곳에 거주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으나 기록의 부실과 조사의 미비로 인하여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8명에 대한 포장이다. 이러한 성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벌써 이를 본받아 자기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조사, 발굴하려는 곳이 많이 늘었다.

대한민국 전체의 경사란 광복 직후 찾아온 분단이라는 아픔이 70년째를 맞이한 이 때, 남과 북이 어떤 희망의 싹을 살려내기 위해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로 인해 70년간 나뉘어져 있는 한반도에, 언제 다시 총부리를 겨누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려있는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름의 싹이 움트게 되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사에 착안하여 이번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를 기획하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광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 찾아온 분단이라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평화를 노래하고자 하였다. 일제의 지배라는 벽을 무너뜨리자마자 세워진 분단이라는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성북구 독립운동가의 집터》영상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단편영화

이를 위해 먼저 두 가지 단편 영화를 준비하였다. 《성북구 독립운동가의 집터》와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 《성북구 독립운동가의 집터》는 오롯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 내레이션까지 맡아, 성북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가 살았던 집터를 조사하며 20대 청년들이 가진 독립운동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담아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은 많은 독립영화로 유명한 강의석 감독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구보 박태원의 일생을 담았다. 영화는 박태원의 아들 박일영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꾸몄는데, 구보가 월북한 이후의 삶까지 담겨져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대담도 진행하였다. 역사디자인연구소 이신철 소장과 재일조선인3세인 임성숙 인류학 박사를 초청하여 《통일을 위한 분단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특히 임성숙 박사는 학창시절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바 있어, 같은 민족임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주었다. 더불어 북한의 도로 사정이나 공항의 주변 환경 등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어서, 나중에 '그날'이 온다면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다.



학술대담 《통일을 위한 분단 살아가기》





《아나키스트의 아내》 갈라콘서트



행사에 참여한 청중들의 모습

행사의 마지막은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우당 이회영 선생과 정릉에서 만년을 보낸 그의 아내 이은숙 여사,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한 《아나키스트의 아내》로 장식하였다. 이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하여 호평을 받았던 창작뮤지컬을 갈라콘서트로 재구성한 것으로, 조국을 위해 몸바친 독립운동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조명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 이전에 결심하는 것조차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공연이었다.



체험과 포토존의 모습



행사장 바깥에도 뜻깊은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야외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태극기 목판 체험과 손도장 찍기 체험, 한용운·이육사·정정화 등 성북구의 독립운동가들 포토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어린이들 틈바구니에 끼쳐 손도장이라도 한 번 찍어볼까 했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는 이내 포기하였다.

또한 성북구청 청사 2층에 마련된 갤러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바로알기 특별전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라)》이 열리고 있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세계 각국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초상, 인터뷰 영상, 직접 쓴 그림일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록과 현실을 다룬 작품들로 구성되어 큰 울림을 전달해주는 전시였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바로알기 특별전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라)》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이라는 벽이 남과 북을 가로막은 지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이 벽을 넘기 위한 숏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넘지 못하였다. 그리고 결코 넘지 못할 벽, 어쩔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금 평화와 통일이라는 싹이 움트는 것을 목도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 뿐이다. 그러면 이 행사의 모티브가 된 도중환 시인의 시 <담쟁이>처럼, 싹에서 담쟁이가 자라나 결국 그 벽을 넘으리라. 꼭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담쟁이

도중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특집1 |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 3

3·1운동 99주년 기념 만해로드 학술회의

만해로드 대장정, 러시아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를 다녀오다

글_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애와 인연이 있는 홍성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서대문구, 성북구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 2016년 3월 22일 홍성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 남아 있는 만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만해로드 대장정-극동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진행했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탐방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소속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충남 홍성군 등 관계자가 참여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주요 항일독립유적지와 한인 마을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크라스키노 지역 등을 찾았다.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와 성북문화원이 주관했으며 성북문화원에서는 강성봉 사무국장, 백외준 성북학연구팀장(필자)이 참가했다. 탐방일정은 아래와 같았다.

- 1일차 : 인천공항 -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 신한촌 기념탑 - 니콜라이2세 개선문, 영원의 불꽃
- 독수리전망대 - 석식 - 숙소
- 2일차 : 숙소 - 블라디보스토크 역 - 열차 탑승 - 우골나야 역 - 라즈둘리노예 역 - 중식 -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 최재형 선생 거주지 - 전로한죽중앙총회장 - 이상설 유허비
- 아르바트 거리 - 석식 - 숙소(학술회의)
- 3일차 : 숙소 - 한인 최초의 이주마을 지신허 - 중식 - 크라스키노 전망대 -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 혁명광장 - 석식 - 숙소
- 4일차 : 숙소 -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 인천공항 - 성북동 심우장

먼저 탐방 전 연해주에 대한 나의 지식은 매우 희박했음을 고백해야겠다. 만주 벌판의 동쪽에 위치한 좁다란 지역, 그 옛날 발해의 영토였고, 19세기 중엽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은 땅,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지역. 겨우 이런 개괄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떠난 여행이었다. 그런 내게 이번 탐방은 연해주의 오랜 역사와 이곳을 개척했던 한인들(고려인)의 삶과 아픔을 새롭게 알아갔던 시간이었다. 또한 이상설, 유인석, 안중근, 최재형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에서 활동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며, 러시아·중국·일본과 같은 강대국들 틈에서 그들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처했고 고난을 겪었는지도 대략적이거나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해주의 사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관련 책이나 글을 좀 더 읽고 탐방에 참가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허둥지둥 행장만 차려 떠난 것이 못내 아쉽다.

이번 탐방에서 방문한 장소들이 많으나, 지금까지 강렬하게 남아있는 영상과 기억을 즐기삼아 그때의 느낌과 떠오른 생각들을 거칠게나마 정리해 보았다.

1. 바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수리스크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왼쪽에 아무르만을 끼고 달렸다. 바다는 얼어 있었다. 크고 작은 배들은 선창 위로 올려져 미동도 없이 육지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신 바다에는 저 멀리 개미만큼 작게 보이는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난생 처음 보는 신비한 광경에 나는 넋을 놓고 창밖만 바라봤다. 셋째 날 갔던 크라스키노의 앞바다 포시에트만도 얼어 있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연안은 간밤에 내린 눈에 덮여 순백으로 빛나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양공원 앞바다 역시 얼어서 아파트 거리를 따라 걸어 내려온 나와 동행들은 바다 위를 걸어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멀리서 본 바다는 평평하고 하얗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울퉁불퉁한 표면이 열개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뒤척이는 파도가 흑한에 서서히 잦아들면서 굳은 것 같았다. 얼음을 허끝에 대어보니 짜디짠다.

처음 이 겨울에 연해주 탐방을 떠난다 했을 때 추워서 고생이겠다 싶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연해주의 얼음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말로만 들었던 연해주의 흑한과 바다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바다를 내려다봤다. 흑시나 두만강을 볼



블라디보스토크 금각만의 저녁



아무르만



크라스키노 포시에트만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비행기는 북한 땅을 멀리 돌아서 갔다. 1863년 두만강을 건너 연추(크라스키노) 지신허 마을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이 흑한의 땅에다 수수·피·콩·벼·옥수수·귀리·밀·제비콩·옥수수·감자·깨·대마·야채 등을 심어 살아갔다고 한다. 그들의 의지는 저 얼음바다 만큼이나 견고한 것이 아니었을까?

2. 별관

탐방단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점으로 우수리스크와 크라스키노를 기차와 버스로 오갔다. 도시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루에 이동 시간만 5~6시간 정도였다. 그동안 나는 창밖으로 연해주 바다와 별관을 실컷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 사는 것 같았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경작지를 끼고 들어선 마을이나 농가는 찾기 어려웠다. 적막한 풍경이지만 검고 누런 땅을 하염없이 보고 있자니 도시 생활에 지친 눈이 모처럼 편안함을 느꼈다.

지루하도록 넓은 땅을 마주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이 스쳤다. 문득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단순히 독립운동가들 개인 행적의 총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만강을 건너 연추(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토크 역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 기념탑



연해주 최초 한인마을 지신허 마을 터



우수리스크 최재형 선생 거주지

의 옛 이름)에서 마을을 만들고 농사짓던 사람들, 우수리스크 수이푼 강 유역의 비옥한 충적지를 농토로 개간했던 사람들, 블라디보스토크로 모여들었던 한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별판과 도시에서 일터를 잡은 사람들이 모여 연해주 민족공동체를 만들었고, 이 민족공동체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인재로, 또 영웅으로 길러낸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연해주로 모여든 망명자들은 한반도에서 퍼져나간 민들레 씨앗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연해주의 한인사회라는 비옥한 토양에 떨어져 독립의 싹을 틔운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싹의 자람이 저들 강한 나라 사람들 눈에는 왜 그리도 아니꼽게 보였던 것일까? 일제와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그 푸른 싹들을 너무도 야만스럽게 잘라 버렸다. 1920년 4월 자국민 보호라는 기만적인 명분으로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과 우수리스크 일대에서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이를 일러 '4월 참변'이라 한다. 또 소련은 1937년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 17만여 명을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의 허허벌판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한인들이 일본군의 첩자가 될 수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에서였다. 이로 인해 근 70년 가까이 연해주 한인들이 이룩한 마을과 학교, 새롭게 일군 문명은 사라지고 말았다. 탐방하는 동안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일본과 러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 너희들이 떠벌렸던 문명개화,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는 이상 사회란 고작 그런 것이었나? 얼어붙은 땅을 갈아 밭을 일구고, 학교를 세워 사람을 길러내어, 잃은 땅을 찾아 자유로운 마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문명이고 이상

사회 아니냐? 너희들처럼 겁박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문명이냐?” 그러나 이와 같은 분노의 말은 결국엔 나와 우리, 지금의 한국사회를 향하여 던지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과연 우리, 아니 그보다 먼저, 나의 삶은 문명된 삶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개간하고 싹 틔우고 거둬들이고 있는가? 100년 전 연해주의 황무지를 푸른 논과 밭으로 만들어 기적을 일군 한인들. 그 희망과 좌절의 역사가 빈 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차창 밖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3. 만해

연해주의 중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중국 상하이나 서간도처럼 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고 거쳐 간 해외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였다. 1907년 5월 21일 헤이그특사 이상설과 이준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출발했고, 1909년 10월 21일 대한의군참모총장 안중근이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하얼빈행 기차를 탔다. 1911년 5월 20일에는 이종호, 엄인섭, 최재형, 홍범도, 김익용, 강택희가 주축이 되어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마을 신한촌에서 항일독립운동단체 권업회를 조직했고, 1914년 이들은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하였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블라디보스



수이푼 강변 이상설 유허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새벽

토크는 기라성 같은 지사들이 의기투합해 활동했던 우리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무대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만해 한용운의 이 도시에 대한 추억은 저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훗날 만해에게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은 ‘어리석음과 만용으로 잡친 여행’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 이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이렇다 할 행적도 남기지 못했다. 굳이 찾자면 블라디보스토크의 금각만 항구 정도가 아닐까?

만해는 1906년 그의 나이 28세 때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그 여정은 1935년 만해가 『조선일보』에 발표한 수필 「북대륙의 하룻밤」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905년 설악산 백담사에서 수계를 받은 만해는 무전으로 세계일주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세계의 사정을 대강이라도 알아야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를 위해 1906년 음력 2월 서울로 들어온 만해는 여러 정보를 입수한 끝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유럽을 거쳐 미국까지 돌아보기로 야심에 찬 계획을 세웠다. 곧 행장을 차려 출발한 만해는 원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그의 세계일주 계획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만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마을 개척리에서 봉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승려였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은 그를 개척리의 한인들이 친일단체 일진회 회원으로 오인해서 체포해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만해는 그를 바다에 던져 죽이려는 한인들을 향해 “나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내 백골만은 고국에 갖다 묻어 주시오”



블라디보스토크 - 크라스키노간 도로

하고 유연 아닌 유언을 남겨 겨우 곤경을 벗어났다. 그러나 다음날 항구에서 또 다른 한인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고초를 당한 만해는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계속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끝내 세계일주를 단념했다. 곧바로 만해는 두만강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왔다. 오해로 인한 구타, 감금, 공포로 점철된, 첫 해외여행치고는 너무도 쓰라린 경험이었다.

생각해보면 100년 전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의 입구였다. 오늘날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느리고 낭만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던 그 시절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동서를 잇는 초고속 교통수단이었다. 당시 배로 한 달 넘게 걸리는 거리를 열차는 단 보름으로 단축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두만강 건너 블라디보스토크는 세계로 향해 열린 창구였고, 이 땅의 뜻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통해 낯선 문명과 접촉하고 민족의 진로를 탐색하고자 했다. 만해도 그런 사람들에 섞여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만해가 무사히 세계일주에 성공했다라면,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베를린과 파리와 런던을, 미국을 다녀왔더라면 그의 인생 행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우리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실패는 언제나 상상을 자극한다. 오늘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는 물거품이 된 만해의 꿈을 안고 뿜뿜 열어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인 초대석 1

성북을 그리다 정영 작가를 만나다

성북동은 근대 문화예술인들의 보고이다. 김환기, 김용준, 조지훈, 전형필, 오세창, 장승업, 한용운 등 성북동 그 자체가 박물관이며, 미술관이며 문학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아지트였던 성북동 골목길에 전통과 현재와 끊임없는 대화를 이끄는 그 분. 혜화문 아래 건물 외벽에 도자기들로 표현되어 있는 성북동 작업실에서 정영 작가를 만나고 왔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작업실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가의 작업실에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와보니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성북구와 인연이 많고, 또 작업실도 성북동에 있어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때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이하 홍대부중) 나왔어요. 홍대부중 미술 선생님들이 모두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실력이 좋은 분들이었죠. 교직 선생님도 이후 정식으로 부임한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술을 취미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이던가? 아무래도 일찍 배워서인지 몰라도 소질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대를 목표로 했는데,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미술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고생한다.’ 이런 이유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했죠. 엄청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협 본 것이 디자인을 전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디자인과에 가면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과를 갔어요. 그렇게 대학을 갔는데 맨날 꼴찌했습니다. 디자인은 적성에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려치우고 다시 도자기를 전공하는 과로 갔죠.

그 중에서도 도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자기란 것도 그때는 타협점을 찾아서 선택한 거 같아요. 순수예술을 하기에는 너무 반대가 심



정영 작가의 도자기(사발) 작품

“ 도자기는 천·지·인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땅에서 나는 흙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불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다 잘해도 어느 한 과정에서
 조금 한눈팔거나 소홀히 하면 결과물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니까 순수에 좀 가까운 것을 찾은 거죠. 난 도자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대학 시험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머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후배한테 도자기를 배웠어요.

1학년 때 F도 있고 D도 있고 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도자기를 하니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죠. 근데 군대를 다녀와서 학번은 높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후배한테 음료수 하나 사주고, ‘저녁에 나 좀 가르쳐 줘’ 이렇게 부탁을 했죠. 기초는 그렇게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미대는 4학년 되면 졸업전을 해요. 그리고 끝나면 대부분은 학교에 거의 안 나와요. 학교 과정이 끝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나는 졸업하면 도자기를 못할 거 같았어요. 당시에는 취직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12월 30일까지 작업을 했던 거 같아요. 지하에서 추운데도, 혼자서 그냥 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그러다 교수님의 눈에 띄었고 대학원을 가게 되며 본격적으로 미술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작품 소재나, 도자벽화를 선택하시게 된,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도자벽화를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물레를 했어요. 물레 작업. 분청사기 있죠. 그거를 공부했어요. 논문은 기와에 대한 걸 썼는데, 망와(望瓦)¹에 관한 걸 썼지만, 물레가 재미있어서 거기에 푹 빠졌죠. 그래서 그때 연고도 없는 이천으로 무작정 갔어요. 전통가마를 짓고 싶어서요. 그 때 애들이 갓난아기였을 때인데, 그걸 하고 싶어서, 무작정 갔어요. 이천의 어느 마을 외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근처에 무덤이 있고 그랬죠. 집사람이 여기 살기 싫다고 울고불고 그랬는데 가자마자 가마 짓고 작업을 했죠.

직접 가마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가마 짓는 거를 누구한테 혹시 배우셨습니까?

안 배웠어요. 책 보고 후배들하고 같이 지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죠. 두 번 지었는데, 처음에는 삼 단짜리.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그 벽돌을 가지고 통가마를 크게 만들었어요.

1 기와집 지붕의 마루 끝에 세우는, 와당이 달린 암막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만,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가마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도자기를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직접 가마를 만들어 구워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직접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어요. 그때는 벽돌도 중고 벽돌 사다가 만들었어요. 그때가 30대 젊을 때니까. 30대 중반이었어요. 젊었으니까 가능했죠.

전통가마를 사용한 두 번째 이유는 작품이 예뻐서예요. 도자기 가마 원료로는 전기·가스·석유·나무를 사용하는데, 나무로 하는 것, 즉 전통가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막 예뻐요. 물론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고되지만 작품이 나올 희열이 커요. 날씨에 따라도 다르고……. 그래서 도자기는 천·지·인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땅에서 나는 흙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불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다 잘해도 어느 한 과정에서 조금 한눈팔거나 소홀히 하면 결과물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하늘의 뜻을 조금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작품 중에 아주 잘 나올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전시가 며칠 안 남았을 때, 마지막 가마를 때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불 때는데 날씨가 흐려졌어요. 보통 비 오면 불을 안 때요. 저기 압이니까 제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작품이 잘 나왔어요. 어떤 미묘한 조화가 있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때 나온 주전자가 너무 잘 나왔는데, 그것을 누가 사갔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전시하면서 팔았을 때인데, 누가 사갔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 정도였나요?

네. 그런 작품이 몇 개 쏟아져 나왔어요. 다시 그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때가 최고로 만족도가 높았던 작품이에요. 뽕 같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도자기를 깨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TV 보면, 퍽퍽 깨잖아요. 나는 어지간하면 안 깨려고 해요. 왜냐면 애가 못생겼지만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보니까요.

도자기에서 벽화로 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있죠. 그때가 98년도쯤이에요. 어떤 화가가 와서 자기가 이런 안이 있는데 한 번 만들어줄 수 있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벽화도자기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 작품 중 하나가 동숭아트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했어요. 반응도 좋고 하니 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제가 물레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안 한다고 했죠. 당시에 작품이 한 다섯 작품 했나? 금액도 상당했어요. 굉장히 큰돈을 벌 수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물레에만 올인 했죠. 그렇게 죽 안 하다가 다시 도자 벽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제안이 들어온 거네요.

다른 분한테. 다시 제안이 들어왔을 땐, 물레 시장에 저도 지쳤을 때예요. 왜냐면 아까 장작가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 번 불을 때면 땀나무 값만 80~100여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판매는 적게는 20만원 많아도 50만원이 안 돼요. 맨날 이렇게 적자가 쌓였죠. 그리고 불도 일주일 동안 때요. 나무 쪼개고 말리고 이것도 또 몇 달이 걸리고. 그런 과정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과정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지쳐갔던 거죠. 그 시점에 제안이 왔고, 결단을 내렸어요. '작품도 좋지만 식구들을 굶길 수 없다!' 그래서 도자벽화 작업을 하게 됐죠.

벽화작업 중에 대표작은 어떤 것인가요?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에요. 종암동 서울사범대학부속중학교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홍익사대부중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렸을 적에 성북동에 사셨던 건데, 태어난 곳도 성북동인가요?

아뇨. 저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오래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세종시 부근이에요. 조치원에서 제가 5살인가 4살 때부터 살고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4학년 말에 성북구 삼선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삼선초등학교 나오고 홍익중 나오고 경동고 나왔어요. 우리 아들도 여기 나왔죠.



정영 작가의 성북문화원 벽화 작업 참여 작품



벽화 작업 준비중

성북문화원과 벽화 작업을 함께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셨나요?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과 얘기하던 중에 제가 문화원에 도자기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까라는 제안을 했는데, 우리 강 국장님이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작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산 생각도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 벽화로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갑자기 확 커졌죠. 여러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면 못했을 일이에요. 저야 늘 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른 참여 작가 선생님들은 생소했을 텐데 열심히 해주셨죠. 저분들 잘은 몰라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매달렸을 거예요.

이 작업에서 재미있었던 점은요?

다른 분들은 도자전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도 저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했어요. 권진규 작품 있잖아요. 배경에 천에다가 물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셨다

고 하더라고요. 실제 ‘배’로요. 권진규 선생님이 배를 종종 쓰셨대요. ‘그래, 저 기법도 나도 응용해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유돌 선생님은 배치를 홀트려 놓았잖아요. 그런 거 쉽게 생각 못하거든요. 거기다 유돌 선생님은 자기 색깔을 보여주셨어요. 이쾌대의 자화상을 그렸지만, 배경은 자기배경이에요. 그런 것도 너무 멋있잖아요. ‘아, 자기색깔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워요.

도자기로 벽화작업을 하는 게 새로웠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간판이 없으면 외부에서는 문화원인지 모르거든요. 벽화 작업이 저희 문화원의 상징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대학로의 벽화 마을처럼 사람들이 놀러와 사진을 찍고 가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자기가 갖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가마라고. 핵에서 펄펄 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를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도자기의 삶과 비슷해요. 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도자기의 매력은, 한 번 만들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의해 형태가 창조되는 것에 대해 성취감, 창조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쓰임이 된다는 것도 기쁨이고 매력입니다.

사적인 질문인데, 사모님도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으시나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서 서로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보는 게 익숙해지니까 자꾸 영향을 받죠. 그리고 가장 솔직한 비평가가 되어 줘요. 남의 것에 대해서 원래는 함부로 비평 못 하는데 부부는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는 서로 상당히 공존하고 있죠.

같은 일 하면 다른 장점이 있나요?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은 상처 받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서로 영향을 받는데, 작품을 보고는 ‘(부인이) 가르쳐 줬어?’ 이렇게 돼요. 좋은 점은 서로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아니까 이해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대학 1학년 때 만났으니까, 나는 복학생이었고 집사람은 미팅도 못 해보고 저랑 8년 연애했고 결혼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무 말썽 없이 잘 참아줘서 동지, 동반자로서 고맙고 자기 영역을 구축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박수쳐줄 만큼 대단하다고 봐요.



제11회 정영 작가 개인전 - 잡상전 작품

성북구 주인이기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니까 주인으로서, 작가로서 성북구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북구가 미술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미술인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원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미술인들은 전시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해요. 전시 장소를 주고 기획해주면 미술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술계 비주류에게 전시 공간을 많이 개방해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작가나 실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설 공간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적에,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특이한 일 하는 사람에게 관대한 시각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술 작업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포용력 있게 해줘야지 사회에 다양성도 생기고 에너지가 솟아나죠.

다양성에서 창조가 나오는 건데, 도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을까요? 도자기를 생활 용품으로 보기도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가의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각이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할까요?

다른 건 없고, 많이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처럼 플라스틱 그릇을 애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플라스틱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환경 문제도 있어요. 도자기는 돌이니까 친환경적이죠. 특히 한국음식은 플라스틱 쓰면 안되는 게, 뜨거운 음식이나, 발효음식이 많아요. 발효음식 안에 산성 성분이 많은데 당연히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을 녹일 확률이 높죠. 뜨거운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문화가 미국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빠르게 변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너무

“도자기는 돌이니까 친환경적이죠.
특히 한국음식은 플라스틱 쓰면 안되는 게,
뜨거운 음식이나, 발효음식이 많아요.
발효음식 안에 산성 성분이 많은데
당연히 플라스틱은 환경호르몬을
녹일 확률이 높죠. 뜨거운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문화가 빠르게 변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너무 고속성장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설거지도
빨리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깨지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빨리 그걸 버려서 도자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뿌리내렸으면 좋겠어요.

고속성장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설거지도 빨리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깨지면 안 되니까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빨리 그걸 버려서 도자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뿌리내렸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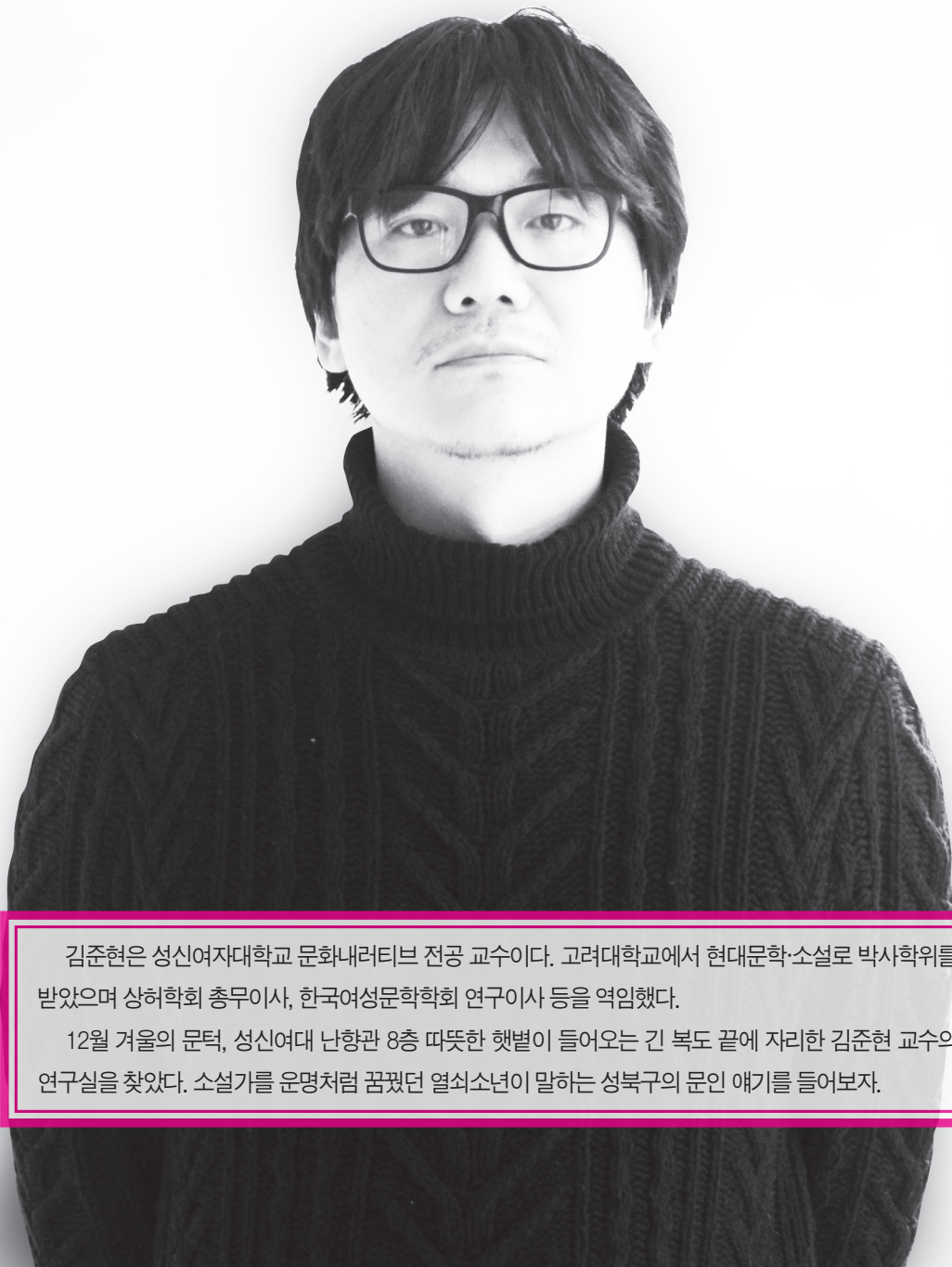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요?

크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꿈은 있어요. 해외에서는 일본에서밖에 개인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영역을 넓히고 싶어요. 특히 뉴욕 같은 경제·문화의 중심인 곳에서 서양인들과 전시로 붙어보고 싶어요. 싸움이 아니라 우리 것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건 해결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산업, 즉 경제적으로 보지 말고 문화적으로, 다시 말해 경제적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즐기는 문화를 갖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자기 문화도 더 대중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 정리_김정현(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팀장)

성북구 문인의 연구자 김준현 교수를 만나다



김준현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내러티브 전공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현대문학·소설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상허학회 총무이사, 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12월 겨울의 문턱, 성신여대 난향관 8층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긴 복도 끝에 자리한 김준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소설가를 운명처럼 꿈꿨던 열쇠소년이 말하는 성북구의 문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먼저 연구실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공이 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연구실의 분위기도 집필실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문학에 대해 물어보고, 성북구와 교수님과의 인연, 문학인들이 살던 공간으로서의 성북구 등을 여쭙볼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소에도 성북구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먼저 물어볼 것은 문학에 대한 것입니다. 독서, 평론, 창작 등 모든 것을 ‘문학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평론이나 창작, 그중에서도 특히 창작을 문학 활동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좁은 의미의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이 있나요?

독서, 평론, 창작 등 모든 것을 문학 활동이라고 하지만 창작만을 문학 활동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좁은 의미의 문학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10살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99%가 하게 되는 진로 고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설가가 되려고 국문과에 지원했고, 대학원에도 갔어요. 제가 생각하는 소설가는 사상가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대학원에 갔죠. 하지만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많은 학문 활동으로 창작 활동이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마흔 살이 되어 간신히 수상 작품집에 단편소설을 실으며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소위 ‘순수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도권 문단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대중소설, 장르소설 등을 썼습니다. 지금은 웹 소설을 쓰며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해야 할 웹 소설 원고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10살 때부터 소설가의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10살이라고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국문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책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정서불안이 좀 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였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소설만 본 거죠. 그 당시에 열쇠소년이란 말이 유행했었는데 열쇠 갖고 다니면서 집 문을 열고 다니는 소년들을 열쇠소년이라 했습니다. 제가 그 열쇠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설 보고 ‘아, 소설 너무 재밌다 나도 써보고 싶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구요. 노트에다 쓴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참 우습지만, 그래도 그때 어른들한테 글 잘 쓴다는 칭찬도 한 번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는 ‘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의 전공이 국문과였다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거기다 아무도 소설가의 꿈을 말리지도 않았습시다. (웃음)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읽었다고 하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작품과 작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호철¹ 선생님입니다. 이호철 선생님은 사실 성북구하고도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성북구 암자 등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초기의 전업 작가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호철 선생은 초기부터 전업작가라는 말에 어울릴 만큼 다작을 하셨습니다. 다작에도 불구하고 작품도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활동할 당시에 다루기 어렵던 분단과 통일, 이런 문제를 작품에 투영하셨습니다. 「관문점」²이라고 60년대에 쓴 단편소설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관점으로 관문점과 분단상황을 비판하셨지요.

이호철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분단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추상성을 경계하고 구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생성이 중요하고 실제 현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평소 통일 문제와 분단 문제에 대해 문인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하시는 분이었는데, 20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남북정상회담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수님의 문학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성북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신학교가 성북구 소재이긴 합니다만, 성북구에서 근무도 하시고 성북구에 사시는데 그럼에도 성북구 문인들에게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성북구에 속해 있는 학교의 국문과 출신이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학교만 다닌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북구에 속해 있는 문인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제 출신학교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주목이 덜 되었지만 사회와 문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태준³ 선생이 「달밤」⁴이라는 소설을 쓴 것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북동에 이사 왔기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북구가 「달밤」을 만든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달밤」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태준 선생의 작품으로서의 「달밤」 밖에 얘기를 안 하죠. 저는 그래서 성북구와 관련된 「달밤」과 같이, 지역이나 어떤 사회와 작품과의 관련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반드시 성북구여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성

1 소설가 이호철(1932~2016, 함남 원산)은 분단의 아픔과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문제를 작품화해 온 대표적 작가이다. 60년에 육박하는 긴 창작 기간 동안 100여 편에 이르는 단편과 30여 편의 중·장편 소설을 남겼다. 작품집으로 『나상』(1961), 『서울은 만원이다』(1966), 『문』(1981), 『천상천하』(1986), 『소슬한 밤의 이야기』(1991), 『관문점』(2012) 등과 수필집으로 『작가수첩』(1977), 『마침내 통일절은 온다』(1988), 『문단골 사람들』(1997), 『소설가 이호철이 겪은 남·북한 반세기』(2003) 등이 있다.

2 1961년 『사상계』(3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이 작품으로 이호철은 제7회 현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3 소설가 이태준(1904~?, 강원 철원)은 1925년 문예지 『조선문단』에 「오몽녀」가 입선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개벽』과 『조선중앙일보』의 기자, 『문장』지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1933년 박태원·이효석 등과 함께 ‘구인회’를 조직하였다. 1934년 첫 단편집 『달밤』출간을 시작으로 『가마귀』, 『사상의 월야』, 장편소설 『해방전후』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해방 후에는 문학가동맹, 남조선민전 등 조직에 참여하다가 1946년 월북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성북동의 수련산방은 그가 1933년에 지어 월북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집이다.

4 1933년 11월 월간잡지 『중앙』에 발표한 단편소설로 1930년대 서울 성북동이 배경이다.

“이태준 선생이 「달밤」이라는 소설을 쓴 것도
이태준 선생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북동에 이사 왔기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북구가 「달밤」을 만든 것이기도 해요.



성북문화원과 인터뷰 중인 김준현 교수



성북동 조지훈 집터 표석(성북동 60-44)

북구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성북문화원과 같이 협업도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기도 좋고 물어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 문인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성북문화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의 문학 분야에 참여하셨고, 최근 정릉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성북구’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인들은 대부분 사대문 안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대문 안으로 출근을 하거나 이 지역 학교에 출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이 되면 조지훈⁵ 선생과 정한숙⁶ 선생은 성북동에 있다가 고려

- 5 조지훈(1920~1968, 경북 영양) 시인은 1939년 『문장』에 「고풍의상」, 「승무」, 「봉황수」 등이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초대 소장,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다. 박두진, 박목월과 『청록집』을 간행했으며 시집 『풀잎 단장』, 『조지훈 시선』, 『역사 앞에서』, 『여운』과 수필집 『돌의 미학』과 평론집 『한국문화서설』 등을 간행했다. 1941년부터 작고하기까지 성북동 60-44번지의 한옥에서 살았다.
- 6 소설가 정한숙(1922~1997, 평북 영변)은 1946년 월남해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8년 단편소설 「홍가」가 문예지 『예술조선』 공모에 당선되면서 등단했고, 전광용·정한모 등과 함께 〈주막〉·〈시탑〉 동인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1957~87)로 있는 동안 왕성한 창작 활동과 저술 활동을 펼치며 후진들을 양성했다. 소설집으로 『애정시대』, 『묘안묘심』, 『황진이』, 『내 사랑의 편력』, 『암흑의 계절』, 『시문의 회상』, 『끊어진 다리』, 『우린 서로 닮았다』, 『조용한 아침』, 『안개거리』, 『말이 있는 팬터마임』, 『대학로 축제』 등이

대학교로 갑니다. 염상섭 선생은 사대문 안에 있는 조선일보사로 출근을 하시죠.

문학사에서는 『현대문학』⁷ 계열 문인, 『자유문학』⁸ 계열 문인이라고 구별하고, 이분법적으로 대립했던 문인집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호 대립적이었던 두 잡지도, 참여문인들의 주거지와 활동지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재구성해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되는데, 바로 성북동과 정릉동의 주민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각각 몸 담았던, 문단의 거점이었던 잡지사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쏟아내면서도, 밤에는 같은 전차를 타고 성북으로 돌아와서 옆 테이블에서 때로는 서로를 외면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농을 걸기도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던 같은 동네 주민이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성북동과 정릉동은 사대문 안에서 출근하시던 분들이나 문인, 이 근처 학교로 출근하시던 분들이 밤에 모이던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연구가 안 됐죠. 성북구의 문학이 무엇이나고 얘기를 하려면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와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성북에서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교류를 당연히 했을 것인데, 그 교류의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죠. 문인들의 커뮤니티의 공간으로서의 성북구는 베드타운이라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있었고, 주위에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술가나 지식인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본인들의 삶의 터전에서 당연히 교류활동을 했겠죠. 그 교류 활동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활발했고, 다른 지역보다 심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문학관을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동에도 성북구 문학관을 만든다고 하고요.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성북동, 성북구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어떤 것들이 문학관에 담겼으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이 좀 더 특성화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문학관에는 성북구의 문인들, 성북구의 문인들이 쓴 작품들, 성북구가 들어간 작품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문학조사는 주소지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북구라는 공간과 이 사람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조지훈 선생은 성북동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사람, 저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은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았던 곳이 아니라 문화의 고장이 된 거

있다. 한국현대문학 관계 연구서로서 『현대한국소설론』, 『현대한국문학사』 등이 있다.

7 문학잡지 『현대문학』은 1955년 1월 1일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다. 초대 사장은 김기호, 주간은 조연현, 편집장은 오영수였으며, 그 뒤 주간은 김윤성·윤재근, 편집장은 김수명·김국태 등이 역임했다. 1955년 현대문학상을 제정하였으며, 수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여 한국문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8 문학잡지 『자유문학』은 1956년 6월 1일 창간, 1963년 4월 30일 통권 71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1955년 6월 12일에 창립된 ‘한국자유문학자협회’의 기관지로 출발했으나, 1960년 10월호부터 김광섭이 인수해 독립적으로 펴냈다. 초대 편집 겸 발행인은 김기진, 주간은 송지영, 편집장은 김이석이었고, 자유문학사로 독립되면서 발행인은 김광섭, 편집인은 이현구·모윤숙 등으로 바뀌었다. 주요집필자는 이무영·백철·이하윤 등이었고, 1962년 3월 편집위원제를 실시하면서는 이현구·안수길·이인석·이철범 등이 활동했다. 권용태·남정현·박용숙·최인훈·오찬석·유현종·김현 등 신인문학가 80여 명을 배출했다.

죠.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성북구 문학관은 좀 입체성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작가 한 명, 작품 하나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의 입체성을 확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북동에서, 성북구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셨는가?’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점을 유지하며 유통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문학사를 서술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작가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결국 자본, 노동력, 시간이 필요하겠죠.



4.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에서 '4.19혁명과 우리' 주제로 토크콘서트 중인 김준현 교수

문인 커뮤니티 공간 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문학과 관련해서 성북구가 갖는 또 다른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성북구, 특히 성북동은 한때 시대의 아이콘이었어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압구정이나 청담동, 한남동이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50년대, 60년대 대중소설을 보면 성북동이 항상 많이 등장해요. 성북동이 어떤 대명사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소설을 쓸 때 교장선생님이나 예술가들이 사는 집을 성북동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성북동 살아? 되게 좋은데 사네. 되게 교양 있는데 사네.’ 독자들이 이렇게 인지했던 것이죠. 실제로 성북동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성북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아주 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김내성⁹의 소설 『쌍무지개 뜨는 언덕』에서 쌍둥이 고아가 입양을 가거든요. 고아가 입양을 가는데 한 명은 부잣집에 입양을 가고 한 명은 가난한 집에 입양을 가서, 인생이 계속 엇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소설인데 주목할 것은, 부잣집은 성북동, 가난한 집은 돈암동으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왜 부잣집이 돈암동이 아니고 성북동이나, 왜 가난한 집이 성북동이 아니고 돈암동이나. 이게 우연한 게 아니거든요.

9 소설가 김내성(1909~1957, 평남 대동)은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 작가이다. 20세 때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유학하면서 일본의 추리소설 대가인 에도가와 란포를 사사했다. 1936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일보』에 「가상범인」과 「마인」, 『소년』에 「백가면」 등의 소설을 발표했다. 또한 아서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을 번안 출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금굴』, 『쌍무지개 뜨는 언덕』, 『도깨비감투』 등을 발표하여 어린이들에게 먼 나라에 대한 동경과 꿈을 키워주기도 했다.

대중 강연이나 대담 등 성북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청중이나 참여자들의 반응은 대학생들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반응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들 좋았던 것 같은데...(웃음) 나중에 후기를 봐야죠. 제가 강연에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문학인들의 특이한 점만 보지 말고 우리 이웃으로서의 문학인을 봅시다.’ 그 다음으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가 80년대, 90년대까지 각자의 삶이 역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너무 등한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어깨동무』¹⁰나 『소년중앙』¹¹이라든가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그 잡지들을 지금 연구자들이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러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시인이 성북동에서 50년을 살았던 분인데,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50년 동안 사셨으면 그 당시의 승합차랑 그 당시에 버스가 몇 시에 끊겼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승했고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하시면서도, 제가 그걸 왜 물어보는지 알더라고요. 옛날엔 기억했는데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다고 하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내가 당고개 살면 거기서 몇 시 차를 타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끊기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런 풍속과 관련된 것들이 당시 사람들은 너무 사소하니까 기록을 해놓거나 수집을 해놓을 필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지



정전협정 65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과 1950년대 문학' 주제로 발표 중인 김준현 교수

10 『어깨동무』는 1967년 3월에 창간된 어린이 월간 종합지로 1987년 5월 통권 247호로 종간되었다. 발행사는 육영재단이다.

11 『소년중앙』은 1969년 1월 중앙일보사에서 창간한 월간 아동잡지로 1994년 폐간되었다.

금은 중요한 자료이죠. 그런데 지금 과연 청중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역사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사예요.

제가 이 분들한테 문학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문학가를 소개하는 것, 문학을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문학을 어떻게 발굴하고, 성북의 어떤 문학을 개발한다는 게 특정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지역 주민들이 ‘어? 나 지나가다가 저기 윤대녕¹² 씨 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윤대녕 씨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자료가 돼요. 자연스레 그런 식의 자료 수집은 수집자를 평등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전문가가 수집하는 게 자료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구술사와 일상사가 강조되면서 본인들이 지역 주민이며, 문학을 배워야 되는 사람임과 동시에 지역문학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 그럼 내 주변엔 뭐가 있더라?’ 이런 걸 보시라고 하는 게 아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성신여대 문화내러티브 전공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문화내러티브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문화내러티브입니다. 문화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관점이에요. 문화내러티브 전공은 원래 본 전공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연계전공입니다. 가령 영문과 학생이다. 그러면 영문학을 좀 다른 관점으로 공부해봐라, 이거예요. 영문학을 배웠으면 다른 영문학과는 다르게 내가 무슨 콘텐츠를 만들 수 있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영문학 중에서 버지니아 울프에 관심이 있으니까 버지니아 울프를 미술관에서 어떻게 전시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야기 만들기, 즉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죠. 상관없는 사건 두 개 이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시와 버지니아 울프가 아무 상관이 없었다가 상관이 생기는 것이죠.

성신여대 학생들은 문화내러티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이제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외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개념일 때가 있고 심상적(心想的) 개념일 때가 있잖아요. 가령 이 지역 상인들이 보는 성신여대 앞과 성신여대생이 보는 성신여대 앞은 다르겠죠.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학생들에게 해보니, 어떤 학생들은 ‘돈리단길’을 제안합니다. 우리 성신여대 앞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돈암동’의 돈을 따서 돈리단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신여대는 지금 여성주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서 성신여대 앞에 여성의

12 소설가 윤대녕(1962~ , 충남 예산)은 1990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은어 낚시통신』 『남쪽 계단을 보라』 『많은 별들이 한곳으로 흘러갔다』 『제비를 기르다』 『대설주의보』 『도자기 박물관』, 장편소설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추억의 아주 먼 곳』 『달의 지평선』 『피에로들의 집』, 산문집 『칼과 입술』 『사라진 공간들, 되살아나는 꿈들』 등이 있다. 현재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목표는 내러티브적 관점의 확대입니다.
 담론투쟁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성북구 문인들이나 성북구의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하면 좋나?’
 라고 물었을 때 ‘실증적인 조사도 중요하지만,
 의미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든가,
 ‘남들이 잘 보지 않았던 커뮤니티라는 주제라든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길을 한번 조성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학과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외로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 중입니다.

이런 식의 문화내러티브라는 개념이 실험적이기는 하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문화내러티브라는 말은 성신여대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쓰는 논문에 무조건 내러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으로서 문화내러티브라는 말을 써서, ‘성북구 문인들’도 문화내러티브 개념으로 쓰려고 합니다.

긴 시간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전부 내러티브적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표는 내러티브적 관점의 확대입니다. 그런 걸 담론투쟁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가, 노동해방이 더 중요한가, 여성해방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노동하는 분들은 노동해방,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여성해방이라고 하겠죠. 저도 ‘성북구 문인들이나 성북구의 문화를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하면 좋나?’라고 물었을 때 ‘실증적인 조사도 중요하지만, 의미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라든가, ‘남들이 잘 보지 않았던 커뮤니티라는 주제라든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겠죠. 성북구 안에서는 제가 그런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선생으로서의 내러티브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낯설지 않게,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끔 해야겠지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보니 내러티브라는 것, 특히 문화내러티브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 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올해는 선생님의 이런 목표가 많이 성취되어 학생들이 문화내러티브라는 개념을 걱정 없이 사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 정리_백외준(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특집2 | 성북구의 월북예술인

이념을 넘어
인간과 지역의 탐구로

성북구의 월북 문인들

글_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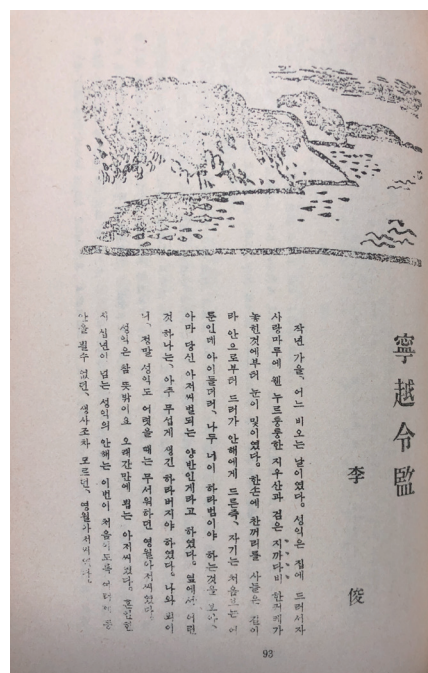
서울과 평양의 거리는 196km이다. 도로만 잘 정비되어 있다면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다. 하지만 평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소위 심상(心象)적 거리는 서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혹은 브라질리아만큼 멀다. 3년간의 전쟁, 그리고 이어진 냉전, 그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과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한 교육 등 그 원인도 너무 많고, 다양하며 복잡해서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 상처도 다양한 분야에 남아 있다. 이산가족과 엄청난 군비(軍費) 등의 문제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상처는 그것을 넘어 정치, 학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정치에서 ‘빨갱이’란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고, 서구 사회에서 흔히 언급되는 ‘마르크스주의’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언급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술 역시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1939년에서 1941년까지 발간된 잡지 『문장』은 당시 조선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글을 실었다. 『문장』의 발간부터 편집, 신인발굴까지 전반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태준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다시 발간된 영인본 『문장』에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다소 어색한 ‘李 俊’ 이름은 많이 등장한다. 벌써 눈치 채 사람도 있겠지만, 그의 이름을 다 쓸 수 없어서 가운데 ‘泰’자를 제외하고 이름을 쓴 것이었다. 살펴보면 이런 이름은 더 찾을 수 있다. 『문장』에 등장하는 ‘朴 遠’은 바로 『소설과 구보씨의 일일』로 유명한 박태원이다. 이쯤 되면 ‘金 俊’이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준이다. 이들이 이렇게 자기 작품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바로 월북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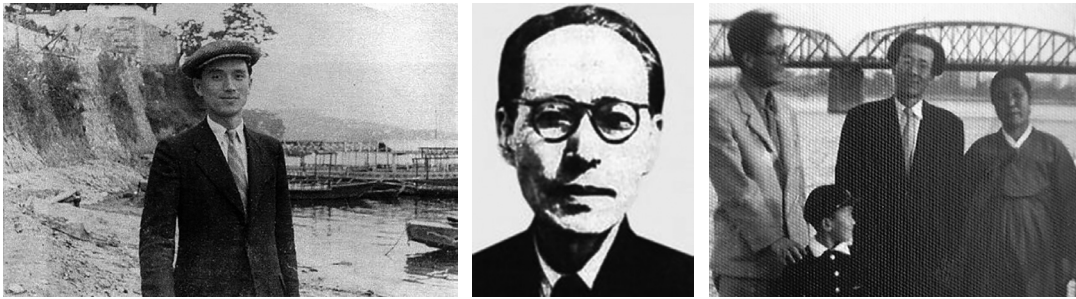
이태준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였다. ‘구인회’의 창간과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과 『문장』의 편집주간으로 많은 신인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글 『문장강화』는 최근까지도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박태원 역시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였다. 하나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방랑장 주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회자되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등 실험적이고도 현대적인 소설을 남겼다. 『근원수필』로 알려진 김용준은 한국 최초의 미술평론가로 평가 받는 인물이었다. 이들의 월북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그들의 작품엔 그들의 이름이 빠져 있을 것이다. 치열한 이념갈등의 시기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들의 훌륭한 작품도 이름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지용의 경우는 ‘납북’ 중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의 작품 역시 해금될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백석은 고향이 평안도 정주였고, 해방 당시에도 고향에 있었을 뿐이었지만, ‘북한 작가’였기에 한국에서는 그의 작품을 볼 수 없었다.

시간을 현대로 돌려보자. 이태준을 기려 만든 ‘상허학회’는 현재 문학계에서 가장 큰 학회 가운데 하나이다. 정지용과 백석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들일 것이다. 김용준의 『근원수필』도 한국의 수필로는 고전의 반열에 오르는 중이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묵혀둔 그들을 다시 찾

“이태준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였다. ‘구인회’의 창간과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과 『문장』의 편집주간으로 많은 신인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문장』 1권 중 이태준이 쓴 '영월영감' 태자가 빠지고 李○俊으로만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에서부터 이태준과 김용준, 그리고 박태원(가장 오른쪽 사진 가운데). 모두 북한에서 촬영된 사진

아냈고, 우리 곁으로 소환했다.

튼금없지만 앞서 언급한 문인들은 월북했다는 것 외에 대부분 성북구에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태준과 김용준은 이웃이었다. 이태준은 김용준에게 택호(宅號: 집 이름)인 ‘노시산방(老柿山房)’을 선물했고, 김용준은 이태준이 새로 내는 책의 표지를 장정(裝幀), 즉 꾸며줬다. 돈암동에 살던 박태원은 나중에 『약산과 의열단』의 인세 대신 성북동의 집을 받는다. 이태준의 집 근처였다. 이태준, 박태원과 친하던 정지용 역시 해방 이후 만 2년 넘게 돈암동에 거주했다. 이들은 자주 만났을 것이다. 과연 이들은 문학만 이야기 했을까? 아니면 해방 이후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을까? 이제는 단순히 그들의 작품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교류 흔적을 찾고, 작품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읽어 내고, 다시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과 지역, 문학과 지역의 관계를 밝히는 지역사의 시작이자, 한 인간의 고민을 보다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시대를 읽어내는 또 다른 인문학의 방법론일 것이다.



석관동 구 중앙정보부 강당

글_이재민(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성북구 이문동(현재 석관동) 중앙정보부 강당은 기자들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던 남북관계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중앙정보부장 이 후락이 단상에 섰다. 그리고 다소 담담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¹⁾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7·4남북공동성명 발표*



강당 내부 전경

*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사진: KTV 국민방송, http://www.ehistory.go.kr/page/view/photo.jsp?photo_PhotoSrcGBN=BK&photo_PhotoID=17&detl_PhotoDTL=3040)

1 (7·4남북공동성명 전문 중 일부) 국가기록원, 「남북공동

7·4남북공동성명은 이렇게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비밀 회담을 통해 남북은 통일의 기본 3원칙에 합의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사회는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마치 해방을 맞을 때와 비슷하게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² 그러나 그 해 10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12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되며 장기 집권체제가 갖추어졌다. 역사의 아이러니란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인 듯하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보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개편되면서 이문동(석관동) 청사는 해외부문 정보수집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부문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했던 남산 청사가 실세였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95년 안기부가 내곡동으로 옮겨가면서 석관동 청사는 역사의 뒤편 길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났다. 석관동 산 1-5번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어진 채 그저 낡고 허름한 건물만이 남아있는 이곳. 방치되다시피 한 강당은 원래 의릉 복원 계획 상 철거 대상이었다. 생각해보면 왕릉에 정보기관이 들어선 것도 신기한 일이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비밀을 ‘무덤’까지 들고 갔으니 말이다. 왕릉 자리를 차지한 중앙정보부는 신도 좌우에는 연못을, 그 주변에는 일본식 정원과 잔디구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훼손된 왕릉을 복원하기 위해 옛 중앙정보부 청사 철거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강당만큼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장소로서의 의의를 인정받아 2004년 등록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면서 철거 신세는 면했다.



옆 건물 회의실의 모습



밖에서 본 회의실(2층)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이후락 정보부장 성명』, 국립영화제작소, 1972에서 녹취.
2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05, 239~240쪽.



2층에서 찍은 강당의 모습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이곳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은 올해 10월 12일이었다. 문화재청에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강당」 개방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이곳을 개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³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는 못해 따로 시간을 내어 구 중앙정보부 강당으로 향했다. 관리소로부터 촬영 허가를 얻어 실내로 들어갔다. 개방을 위해 손을 봐서 그런지 새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 깔끔한 인상을 풍겼다. 문을 열자 넓은 강당이 눈에 들어왔다. 단상에 올라가 관객석을 바라보니 46년 전 그날의 열띤 취재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2층에 올라가니 정 가운데에 ‘특별한 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팔걸이와 등받이에 무궁화가 큼지막이 새겨져 있는 걸 보니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지정 좌석이었을 것이다.

왼쪽에 보이는 문으로 향했다. 강당과 연결된 통로를 지나자 넓은 회의실이 나왔다. 바닥을 가득 채운 융단 카펫, 커다란 무궁화가 장식되어 있는 책상, 여전히 폭신평신했던 가죽의자,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까지. 한때 대한민국 권력 최상부에 있었던 자들만의 공간다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곳

3 「7·4남북공동성명 발표 강당」 국민에게 개방한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8.09.27.



의릉 전경. 신도 좌우에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다.



능침에서 바라본 석관동

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을까. 1972년 남산 청사가 생기기 전 모든 정보 업무가 여기로 집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짐작컨대 성북의 작곡가 윤이상이 연루된 ‘동백림사건’도 이곳에서 언급되었을 것이다.

다시 밖으로 나왔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던가. 그 많던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곳에는 그저 적막과 쓸쓸함으로 가득하다. 다행인 것은 이곳의 진짜 주인인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선의왕후 어씨가 이제야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느 왕릉과 비슷하게 복원된 의릉을 바라보니 생전에도 편치 못했던 부부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기만 하다.

오랜 시간동안 출입이 제한되었던 이곳이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의 왕릉역사 강좌와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상시 개방 계획은 없으며, 출입을 위해서는 관리 사무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19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관도 가능하다고 하니, 문화재청 공지를 확인해서 꼭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구 중앙정보부 강당이 이제는 저 어두컴컴한 음지를 벗어나 시민들의 공간인 진정한 ‘양지’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북동

성북선잠박물관

글_ 오민주(성북선잠박물관 학예연구사)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될 만큼 지역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며 한양도성 밖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2018년 4월에 개관한 성북선잠박물관(성북로96)은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 중 하나인 ‘사적83호 선잠단지’의 유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지어진 지역 박물관이다.

선잠, 분명히 보고 듣고 있는데도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인 선잠(先蠶)은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 옷을 해 입었다는 ‘양잠의 신’ 서릉씨(西陵氏)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 이미 신라의 왕이 누에치기를 장려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부터는 서릉씨를 선잠으로 받들어 모시고 한 해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선잠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국가의례가 더욱 정비되었고, 선잠제는 하늘에 드리는 제사인 환구제를 비롯하여, 종묘와 사직, 선농과 함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국가의 중요한 제사로 여겨졌다.

지금 성북동에 남아있는 선잠단지는 조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5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북동의 옛 지명인 ‘사한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기록, 서울을 그린 옛 지도들, 근대기 흑백사진, 2016년 정밀발굴조사에서 선잠단지의 유구가 남아있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잠단 터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가의례를 행하는 신성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선잠제와 선잠단은 잘 알려지지 못하여, 성북선잠박물관을 개관하려고 준비하던 때에 ‘선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니 ‘실크박물관’, ‘선잠비단박물관’ 등 좀 더 쉬운 명칭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고유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유적을 있는 그대로 널리 알리고 그로 인해 용어도 익숙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성북동과 선잠단을 합친 성북선잠박물관이 되었다. 어느덧 박물관 운영 8개월째가 된 지금은 ‘선잠박물관이지요?’라고 자연스럽게 문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선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성북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간송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면 매년 선잠단지까지 그 줄이 쭉 이어진다. 그 줄이 있던 대로변에 지어진 성북선잠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개방형 수장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은 상설전시실로 선잠이 무엇인지, 선잠제와 선잠단의 과거와 현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비단과 우리 전통 의생활에 관련된 기획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성북선잠박물관은 2013년부터 성북구에서 건립을 준비하였고 2016년에 선잠단지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여 500여년 역사의 유구를 실제로 확인하였다. 이후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성북동노인정 및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박물관 건립을 실시하였다. 필자는 2017년 9월부터 박물관 건립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인 선잠단지를 토대로 만드는 박물관이라고 하니 이를 시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간 수집된 유물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우선 발굴조사 보고서와 언론보도의 사진을 토대로 살펴보니 선잠단지에서는 도자기 파편과 기와편 등이 소량으로 출토되었고 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전무하였다. 오랫동안 국가의례가 이루어진 신성한 공간으로 실제로 사람의 흔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러나 출토유물은 발굴보고서 작성 중이었고 박물관도 아직 지어지기 전이라 유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귀속유물 관리 신청을 할 수 없어 박물관에 바로 전시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수집된 유물을 보니 모두 누에치기와 관련된 민속품이었다. 선잠제가 누에치기의 풍년



성북선잠박물관 전경



성북선잠박물관 입구

을 바라는 국가 제사였으니 당연히 수집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잠사박물관이나 명주박물관 등과 차별화하고 실제 선잠제라는 국가의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잠제의 내용과 역사적 맥락에 맞는 유물이 더욱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박물관에서 주로 유물을 수집할 때 시행하는 공개구입이라는 유물 구입 방식을 활용하여 대국민 공고를 내고 선잠제, 선잠단과 관련한 유물 및 기록, 그리고 비단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서류심사, 1·2차 실물 심사를 거쳐 접수된 2500여 점의 유물 중 291점을 구입하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박물관 소장품 수량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구입을 통해 선잠제에서 실제 사용했던 제사 복식이나 제사에서 사용한 그릇 등 선잠제의 시행 주체인 왕실과 관련된 유물을 현재 시점에서 구하기는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선잠단 및 선잠제, 그리고 왕비가 궁궐에서 누에치기를 장려하며 행했던 친잠례라는 의식과 관련하여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 꼭 필요한 것은 복제하거나 모형으로 만들고 3D애니메이션 등으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먼저, 고지도 및 문헌자료는 모두 서울대 규장각의 허가 및 협조를 받아 복제를 진행하였다. 문헌자료로는 국가의례서인 『국조오례의』, 『춘관통고』에 중요한 국가의례인 선잠제가 당연히 수록되어 있고, 『악학궤범』에 선잠제에 사용된 음악과 연주자의 배열 및 복식도 나와 있었다. 고서를 복제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조오례의』는 선잠단 모습이 나온 부분만 프린트하여 전시하고 『악학궤범』만 실제 고서를 복제하여 선잠제 모형 옆에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중요한 공간이었던 선잠단은 서울을 그린 지도에 명확히 등장하기 때문에 18세기와 19세기 지도를 복제하여 전시하였다.

『친잠의궤』에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친잠례를 행했던 것뿐 아니라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술을 올리는 의식을 행했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유교사회에서 왕비가 궁궐 밖을 나올 수 없어 경복궁 내에 성북동에 있는 선잠단을 그대로 본 떠 제사단을 만들었으므로 『친잠의궤』를 통해 오히려 선잠단의 크기를 찾아 볼 수 있다. 『친잠의궤』에는 또한 왕비의 의식을 준비하며 새로 만든 다양한 기물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아 책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기물들을 3D로 재현하여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 유물을 전시하지 못하여 교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었으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남녀노소 모두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 뿌듯한 전시 콘텐츠이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선잠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은 재현행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선잠제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하여 규모와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선잠제 의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과 영상 모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문헌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과 전해지는 복식 유물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려다 보니 고증 작업이 아주 힘들었다. 선잠제의 경우 처음에는 의례가 정립되고 『악학궤범』에 음악과 복식이 정리된 성종대의 모습을 복원해 보고자 하였으나, 문헌자료만으로는 복식의 세부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없어 최후에 복식 유물이 남아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다. 조선 전기 선잠제의 모습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자문회의를 거



2층 상설전시실

치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혹시라도 틀리게 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될 수 있어 결국 조선 후기의 모습을 선택하게 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선잠제 음악의 경우는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연주한 것을 녹음하여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하고 절차별 사용음악을 따로 들어볼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국악에다가 제사에 사용된 음악이라고 하면 웬지 낯설고 가까이 하기 힘든 느낌이 들지만 선잠제 음악은 젊은 관람객들도 듣고 있으면 고요한 명상이 가능하다는 좋은 평을 종종 남겨 전통이 전하는 아름다움이 현재에도 통하는 것을 느낀다.

성북선잠박물관 3층은 개방형 수장고와 기획전시실로 만들었다. 수장고의 위치는 원래 지하였으나 박물관의 위치가 원래 옷감을 삶아 빨아서 널어 말리던 마전터였으므로 아직도 지하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유물 보존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지상으로 올렸다. 또, 개방형 수장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박물관 수장고의 내부를 직접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관람객도 좋아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오기도 하는 재미있는 공간이다. 3층의 기획전시실은 규모는 작지만 선잠제의 의례 및 음악, 복식, 음식 등의 문화 그리고 비단과 전통 의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북선잠박물관이 올해 12월로 운영 8개월에 접어들었다. 관람객 중에는 상설전시인 선잠제와



개방형 수장고

선잠단에 관심이 더 큰 분들도 있고 기획전시인 자수와 매듭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도 있다. 다양한 관심사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통해 성북선잠박물관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간으로서의 보람을 찾는다.

그간 박물관에서 열었던 크고 작은 행사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한 번 두 번 참여하고 오다가 다 들리는 지역민들이 많아지면서 성북동 길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박물관 공예교실에 참여하고 아이가 '선잠어린이박물관학교'에 참여하여 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던 가족이 무척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즐겁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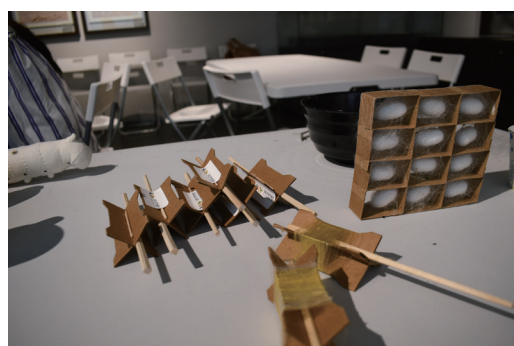
성북선잠박물관은 공립박물관이자 지역박물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선잠단과 선잠제에 관한 역사와 문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전시와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지역민들은 박물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박물관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향유하고 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성북구 소재의 다양한 문화유산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사색과 휴식을 할 수 있는 박물관, 문화적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박물관, 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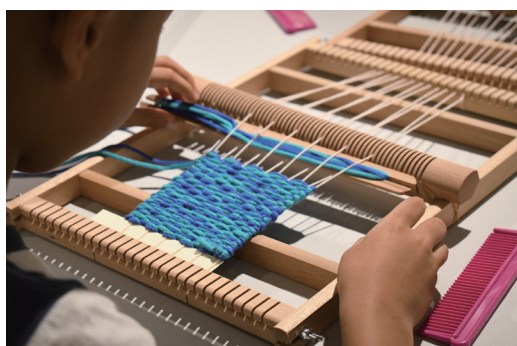
왕실복식패션쇼 행사



성인교육매듭



방학교육실뽐기



직조체험



선잠어린이박물관학교

2018년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이야기

〈미륵대불〉,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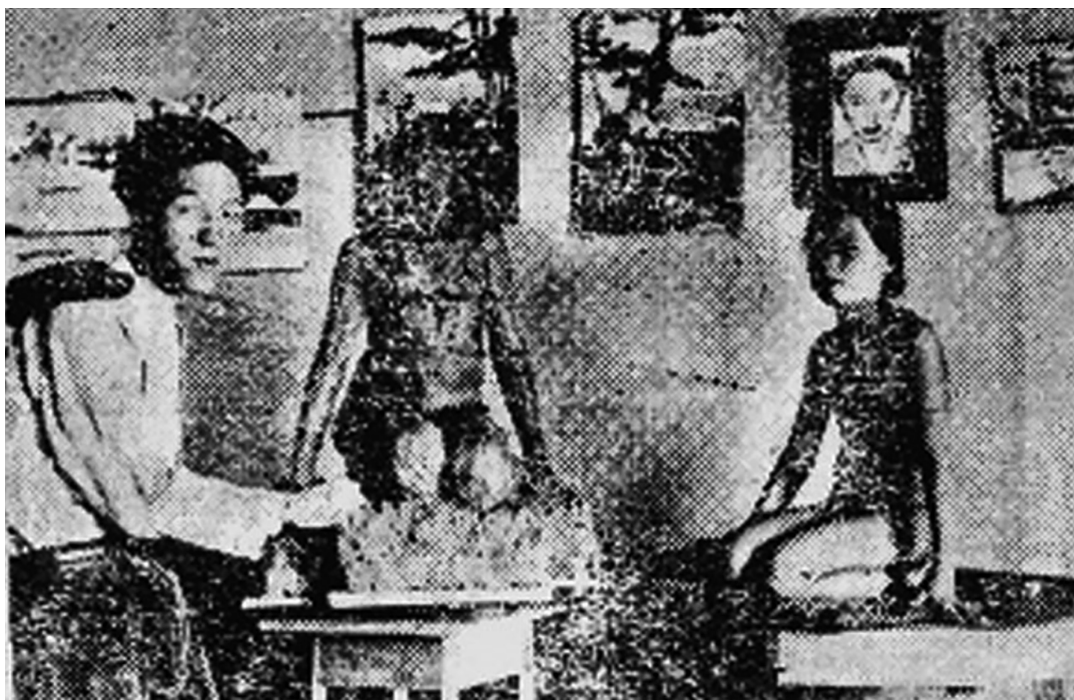


‘한국 최초’가 붙는 선구적인 예술인이었던 정관(井觀)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은 한국 최초의 조각가이자 미술비평의 첫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토월회(土月會)로 신극운동을 개창한 연극인,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 이하 카프)을 창립한 사회주의 사상가, 만화와 광고에 처음 눈을 뜬 언론인 등 그를 지칭하는 칭호는 헤아릴 수 없다.

무엇 때문인지, 많은 재능과 열정을 가졌음에도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라는 격변의 세월 속에서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작품들은 미술사의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고 있다. 동생이자 카프(KAPF) 동료였던 김기진은 “망형(亡兄) 김복진의 이름은 조선문화사의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고 회고한다.

김복진은 배재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0년 일본 도쿄 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했다. 1924년 일본 제국미술전람회에 <나상(裸像)>을 출품해 입선했고,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모교인 배재중학 교원이 되었다. ‘토월미술연구회(土月美術硏究會)’, 청년학관(YMCA) 미술과, 경성여자상업학교의 미술강사 등으로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편, 1925년 제4회 조선미전에 <3년 전>을 출품, 3등상 수상을 필두로 제5회 및 제16회에서는 특선, 제15회 선전에 입선하였다.

누드 위주의 구상작품이 대다수인 그의 소조 작품들은 서화중심의 미술교육에 익숙했던 한국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재현적인 인물상의 등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이는 조각품이



도쿄미술학교 시절, 김복진이 소녀를 모델로 <조선 소녀의 좌상>이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1925년 2월경)



김복진, 〈자각상〉 (1923년)

일상의 쓰임에서 벗어나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미술로 인식되는 토대가 되었다.

미술평론가 최열은 「김복진 힘의 미학」(1995)에서 이 시기의 작품들을 “녹슬어 가는 향토성, 민족성’을 살려내는 ‘새로운 예술·미술’의 알맹이가 김복진 초기 작품의 특징”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의 작품 활동은 형무소생활 5년 6개월(1928-1933)간의 공백기를 보여주는데, 이는 카프(KAPF)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이 발각돼 제3차 공산당검거시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공백기 이후의 후기 작품들은 크게 소묘조각(기념비적 초상조각)과 불교조각으로 나뉜다. 그가 1936년 창설한 조선미술원의 목표인 “첫째, 과거 조선미술의 계승, 둘째, 근세세계 미술의 섭취”라는 두 강령이 이러한 두 방향의 미술경향을 낳은 것이다. 그는 『조선중앙일보』(1935.10.5.)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한다.

“예술관념과 윤리관념은 공간(楨杆, 지렛대)의 양단(兩端)이다. 예술은 예술적 감흥을 가지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높은 곳으로 운택하게 새롭게 하는 곳에, 소위 감흥에 공여하는 예술 이외에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톨스토이의 예술과 윤리의 합일론이 서게 된다.”

그가 그린 소묘조각들은 천하장사 서상천 대한씨름협회 회장, 연희전문 부교장 유억겸, 음악가 현제명, 양정고보 교장 안종원 등 당대의 지도자급 인사들이므로 보아 그의 교유관계를 가늠케 한다. 한편, 김복진의 불상조각은 관음보살상과 미륵상으로 나뉘는데, 김복진은 일제식민지 하에서 미륵(구원의 신앙체계)의 조형적 구현으로 민족의 미래를 예시하고, 전통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정진했음을 보여준다. 대표작으로 1935년 계룡산 소림원 〈미륵불 입상〉, 1936년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 1939년 예산 정혜사 〈관음전 관음보살좌상〉 등은 미완에 그쳤지만 청주 법주사 〈미륵 대불(大佛)〉도 그에 의해 시작된 불상이다.

1940년 39세의 일기로 요절한 정관 김복진은 보보(만딸 김산용의 애칭)가 이질에 걸려 죽은 지 정확히 한달 후, 역시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금일, 동경을 떠나서 대판에 갔다가 그 길로 집에 가겠다. 그 동안 펍 컷겠지. 엄마하고 싸우지 않고, 동네 아이들 하고 잘 놀고 하였나? 이번 가을부터 보보가 살 집을 구하고 다녔다. 그리고 보보 동무될 사람도. 머리 깎고, 매일 물장난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모기, 딱 정벌레 물리지 말고 잘 있다가 정거장에 나오너라. 이제 아빠는 보보 없이는 못살 지경이다. 보보, 그러면 배탈 나지 말고, 감기 들지 말고, 모기 물리지 말고, 땀띠 나지 말고, 나흘 밤만 기다려라”

— ‘귀여운 딸 보보(寶寶)에게’, 1940년 11월

글_ 안현정(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미술평론가)

구슬 같은 기억을 불러내는 언어

— 박완서 소설과 마을기록

글_ 조성윤(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돈암동, 옛 돈암동

“성신여대면 돈암동에 있을 텐데? 나는 좀 놀란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동으로 나뉘어져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후배가 가르쳐준 건 새 이름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쪽 지리에 휩했다. 위치를 자세히 물어보니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인 게 분명했다. 내 처녀적의 마지막 집도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에 있었다.”

지난 12월 18일, 성북동 초입의 작은 전시 공간인 성북예술창작터에서 「그 남자네 집」* 낭독극이 열렸다. 낭독극은 아리랑도서관과 성북예술창작터에서 기획 및 진행하는 ‘문인사기획전 4 지금 여기 박완서’ 전시의 연계 행사로 바로 전시장 2층에 무대를 마련하고 간이의자로 객석을 두어 진행되었다. ‘가야그머’ 정민아의 섬세하고도 강렬한 가야금 선율과 성우 윤소라의 담담하면서도 생생한 연기는 웅기종기 모여 앉은 관객들을 단숨에 성신여대와 성북경찰서 사이의 골목길 위로 데려다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소설 속 화자의 회상을 따라 1950년대 돈암동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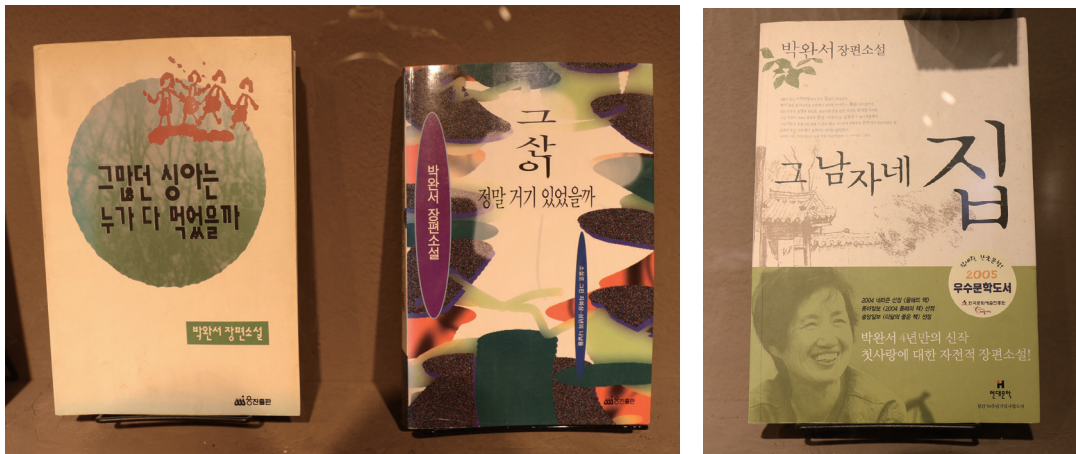
글머리에 인용된 『그 남자네 집』(2004) 구절에 나오듯 옛 돈암동은 지금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작가 사진 원본 저작자 한국문학번역원
(출처 : Wikimedia Commons)





「그 남자네 집」 낭독극



전시장에 놓인 『그 많은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남자네 집』 초판본

있다. 소설에서 화자의 기억을 불러오는 데 도움을 주었던 랜드마크의 주소지는 이제 돈암동이 아니다. 성북경찰서와 동도극장 자리는 삼선동에, 돈암동 성당과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신선탕이라고도 불린 신안당 자리는 동선동에 속한다. 비록 성당의 소속은 동선동으로 옮겨졌지만 이름에는 여전히 ‘돈암동’이 남아있다. 그 시절을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삼선교 포장마차

에서 나와 동도극장을 지나 안감내까지 걸어오는 길과 거기서 보이는 성당의 회색 돌벽, 목욕탕 굴뚝의 붉은 벽돌은 여전히 돈암동이라는 하나의 화면 속에 비친 풍경일 것이다.

공간이 말하게 하다

작가가 스스로 기억에 의해 쓴 소설이라고 말한 두 편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에서도 돈암동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근처 지리에 익숙한 독자라면 한 번쯤 소설책을 품에 끼고 성북천변을 걸으며 소설 속 ‘안감내’를 떠올려보았을 것이다.

안감내는 구청 앞을 흐르는 성북천의 옛 이름으로 60년대 개발의 흐름 속에서 복개되어 아스팔트 아래에 갇혔다가 2000년대 초반에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 안감내는 여러 기억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전쟁이 끝난 후 여기저기 피난 소동에 떠돌다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준 것은 수양버들이 살랑대는 안감내였다. 성북경찰서에 끌려가며 “그래, 우리 집안은 빨갱이다”라고 소리치던 분노와 상처의 메아리도 하천의 물결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장소들도 그렇다. 지금도 여전히 활기찬 돈암시장은 전후의 구질구질한 시장 물건들 속에서 미제 장수들이 PX에서 나온 미제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던 공간이기도 하다. 이제는 옛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운 장소도 있다. 지금의 성북동 길(성북로)은 복개 후 복원되지 않은 구간이라 옛 하천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해서든 먹고 살아야 했던 시절 ‘나’와 ‘근숙이 언니’가 진지하게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다과점을 열기로 결의한 장소가 한여름 성북동 개천가이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전쟁 전 고등학생이던 ‘나’는 학생 신분을 숨기고 몰래 동도극장을 드나들며 스릴을 즐기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교복의 흰 깃은 단박 눈에 띄게 돼 있어서 날째게 안으로 구겨 넣고 시치미 떼고 앉았다고 누가 학생인 걸 모를까마는 세상을 감쪽같이 속여먹은 것 같은 쾌감을 맛보곤 했다.” 동도극장은 1948년 2월 24일에 개관하여 1981년까지 운영되었다. 위치는 삼선교에서 성신여대역 방향으로 가는 길 중간(동소문로 38)으로 지금은 우리은행 동소문로 지점이 들어서 있다.

『그 남자네 집』에서 50년 만에 동네를 다시 찾아온 ‘나’는 신안탕이 옛날 목욕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에 감탄한다. 사우나나 찜질방이 들어서기 시작한 지도 꽤 되었기 때문이다. 목욕탕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졌다. 하지만 매번 퇴근길에 행한 차고지 앞을 지나갈 때면 여기가 목욕탕이 있던 자리지 하고 떠올리게 된다. 『그 남자네 집』의 구슬 같은 아가씨가 살던 골목이구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을까』에서 ‘오빠’가 아기

를 만나기 전 퇴근길에 꼭 여길 들렀지.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도 목욕탕이 있었는데 하면서 나만의 목욕탕 추억으로 빠지기도 한다.



2008년 6월에 촬영된 신안탕 외관(Daum 지도 로드뷰)



신안탕 자리의 2018년 현재 모습. 블루호텔과 아리랑교통주식회사의 마을버스 차고지.

“토요일날 귀가하면 오빠는 허둥대며 목욕탕 먼저 다녀왔다. 우리가 올케를 맞으면서 이
사 간 집은 신안탕이라는 목욕탕 바로 뒷집이었다. 그러나 목욕탕이 가까워서라기보다는 멀
리 구과발서부터 서울 장안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온 몸으로 아기를 안을 수 없다는, 유별난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목욕을 급하게 구는 거였다.”

추억이 깃든 공간은 잠든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잊고 지내던 일이라도 오랜만에 옛 장소를 다시
방문하면 옛날 일이 절로 회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장소에서 겪은 일이 아니라면 그
장소는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장소는 사람의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언어
로, 이야기로 풀어주는 순간 잠들어있는 그 공간의 기억이 깨어나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침묵하
는 사진이나 물건의 사연을 언어로 기술하는 작업을 기록관리학에서는 ‘기록화한다’, ‘맥락화한다’라
고 표현한다. 사람의 마음, 그 당시의 감수성까지 기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좋은 문학이 그 역
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의 이야기

구슬 같은 처녀와 청년의 사랑도, 벌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수모와 치욕도 지나고 보니 밥과 김치
같은 평균치의 밥상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야말로 특별하고 소중하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해 공감을 받는다. ‘지금 여기 박완서’ 전시 오
프닝 때 성북예술창작터 학예사가 전시 소개차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박완서 소설은 지금
의 젊은이들이 읽어도 공감 가고, 지금 여기서도 유효한 이야기라고 말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의
문학이 국가나 민족이나 이념과 같은 거대한 개념에 밀리지 않고 곳곳이 살아온 보통 사람의 이야기
를 다룬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박완서는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작가이다. 그는 서울 중산층의 삶을 살아왔고 역사의 굴곡
을 정면으로 맞아낸 중산층의 삶을 글쓰기로 남겼다. 작가가 성북구에 거주했던 시기만 추려보자면
해방(1946년) 이후 6·25전쟁(1950-53년) 사이에 돈암동에서 네 번의 이사를 했다. 이때 오빠와 작
은아버지를 잃는다. 1951년 PX에 취직하여 어머니와 올케 그리고 조카의 생계를 책임진다. 1953년
에 결혼하여 충신동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친정은 당시에 삼선교에 있었다. 1954년 첫 아
이를 출산하고 이어서 55년, 58년, 60년에 아래 세 딸을 출산한다. 1961년 봄 ‘신설동 집’으로 이사와
고 1963년에 막내아들을 출산한다. 신설동 집은 지금의 보문동6가에 있었다. 1970년 『여성동아』 장
편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되며 등단하게 된다. 보문동에서는 1981년까지 거주했다.



2017년에 촬영된 보문동 한옥. 개축된 모습으로 빌라 사이에 남아있다.

위와 같은 이력이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소설을 읽으면 마치 구술사 연구자가 한 사람의 생애사를 연구하기 위해 구술을 채록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의 삶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대부분 1인칭으로 서술되고 매우 쉽게 읽힌다는 특징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물론 독자가 편안하게 읽는 글이라고 해서 작가가 쉽게 쓴 글은 아닐 테다. 박완서는 어느 인터뷰에선가 누가 읽어도 쉬운 글로 다듬기 위해 여러 번 원고를 다시 읽고 고심했던 작가의 속사정을 털어놓은 적 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통 사람이지만 다행히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뛰어난 작가였기에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이 재미있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진다.

보문동은 작가가 데뷔작을 발표한 곳이다. 이 동네는 글쓰기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소설의 글감이 되기도 했다. 동네 모습을 스케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단편소설 「닭은 방들」(1974), 「어떤 야만」(1976), 「노인」(1977), 수필 「우리 동네」(1977) 등이 있다. 돈암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입고 먹고 자는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브이로그(VLOG)를 보듯 생생하다. 위 단편에서는 또한 한옥에서 양옥으로 변화하는 거주 환경과 그 아래 숨은 동네 사람들의 생리를 예리하게 관찰한다. 보문동의 근대식 한옥이 밀집해있던 골목에 하나, 둘 양옥이 들어서고 요즘 와서는 원룸과 빌라가 들어서면서 한옥은 드문드문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박완서의 소설 속에는 한옥 기와의 검은 물결 아래에서 ‘지금’을 살아낸 사람들의 울고 웃는 표정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보문동과 옛 돈암동 일대를 살아온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같은 동네의 같은 골목을 걸어도 읽기 전과는 다른 풍경이 보인다. 여러 시절의 풍경들이 겹겹이 쌓여 그 공간의 깊이

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정서의 깊이도 달라지리라 믿는다. 『그 남자네 집』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반 이상은 추억의 무게이다.” 나머지 반의 무게는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면서 사랑이 되는 것 같다. 그 추억을 알고 그 슬픔을 이해하면 여태까지 별 감정 없이 지나치던 길이나 건물도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따뜻한 변화를 박완서의 소설을 읽고 걸으면서 경험하게 되었다. 성북의 마을아카이브도 이러한 박완서의 문학세계를 닮기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자료

수류산방 엮음, 『예술사 구술 총서 5 박완서 朴婉緒』, 수류산방, 2012.

박수진 외 7인, 『보문동 · 안암동』, 성북문화원, 2017.

〈동도극장 개관(東都劇場 開館)〉, 『경향신문』 1948. 2. 25.

〈성북천 복개 상가아파트 건립〉, 『중앙일보』 1967. 10. 23.

〈성북천도 돌아왔다〉, 『한겨레』 21(제556호) 2005. 4. 20.

* 낭독극의 원작 「그 남자네 집」은 2002년 『문학과사회』 여름호(58호)에 발표된 단편이다. 그리고 2년 후 장편 『그 남자네 집』 초판이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본지에 실은 발췌문은 세계사에서 박완서 소설전집으로 묶은 장편에서 따왔다. 단편은 문학동네에서 엮은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7권에 서 찾을 수 있다.



보문동4가 한옥밀집지구, 1976년 9월 9일. 동쪽으로 성북천이 있고 서쪽으로 보문로 건너 보문동5가, 6가가 붙어있다.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아카이브)

2018년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이야기

결승선에 도달한 손기정

손기정 이야기

글_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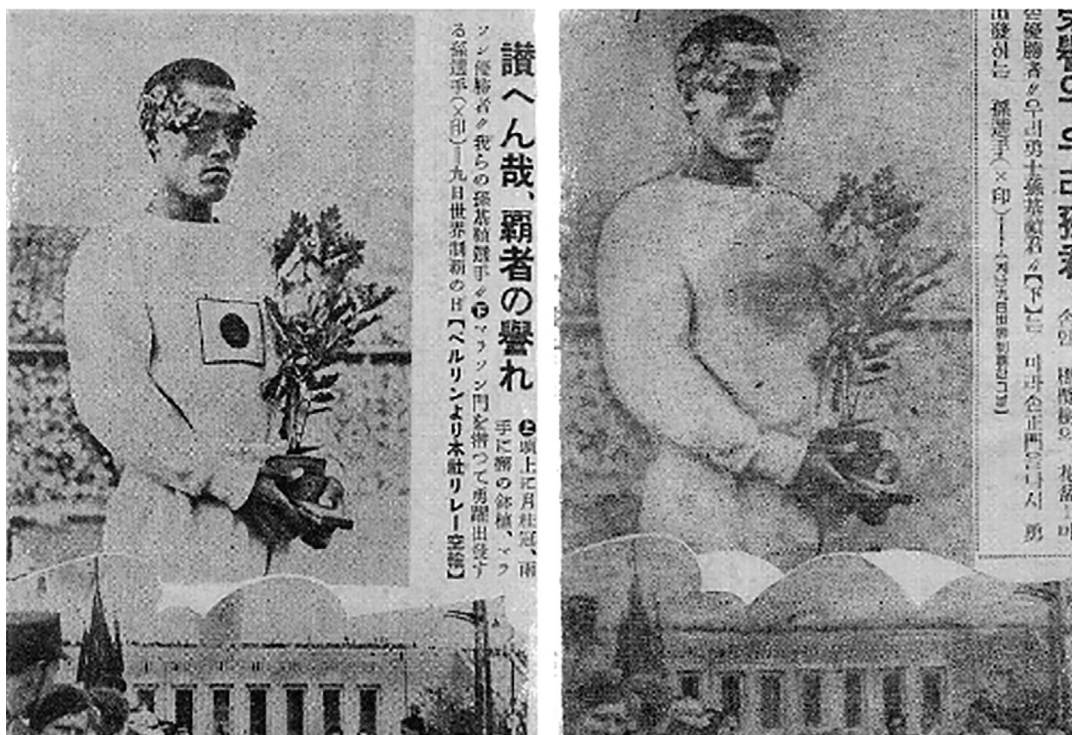
우승을 했음에도 그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한 동양인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를 기록,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마라톤 종목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데다, 2시간 30분이라는 벽을 깬 순간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상식에서 이 선수는 그리 밝은 모습이 아니었다. 시상대에 올라선 그는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고개를 꼭 숙이고 있었고, 금메달 수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표목으로 가슴을 가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동양인 최초, 2시간 30분 돌파, 올림픽 신기록 경신, 이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으면서 그가 밝을 수 없었던 것은 어떤 까닭일까? 그리고 그토록 가리고자 했던 가슴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여기까지 보았다면 이 선수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이다. 바로 한국인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인임에도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뛴 수밖에 없었던 마라토너 손기정(孫基禎 1912~2002)이다. 그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자신의 가슴팍에 박힌 일장기를 보며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표목으로 애써 일장기를 가리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심정은 손기정이 지인에게 보낸 엽서에 쓴 세 글자에서도 드러난다. ‘슬퍼다’



지인에게 보낸 엽서에 적힌 세 글자 '슬푸다'가 당시 그의 심정을 말해주는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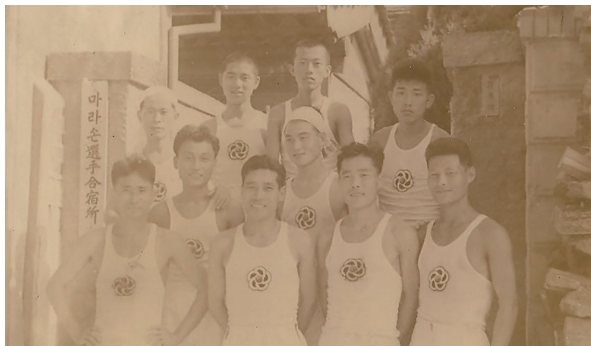
《동아일보》는 1936년 8월 25일자 보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

손기정의 쾌거는 즉시 널리 알려졌다. 193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손기정의 우승을 기사로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인쇄품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손기정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잘 보이지 않게 발행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를 검열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8월 25일 《동아일보》에 다시 한 번 손기정의 옷에 새겨진 일장기가 완전히 지워진 사진이 게재되었고,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인해 기존에 사진을 게재했던 《조선중앙일보》는 사장 여운형의 사퇴와 동시에 폐간되었고,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조치를 받았다. 또한 사장 송진우, 편집부장 설의식, 체육기자 이길용 등의 언론계 활동이 금지되었고, 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동아일보》에서 진행된 ‘일장기 말소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다. 조선의 마라토너 손기정이 우승했다는 기쁨을 일본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항일 의지를 바탕으로 체육기자 이길용, 화가 이상범, 사회부 기자 장용서, 사진과장 신낙균, 사진부원 서영호 등이 합심하여 사진 속 일장기를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지운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제는 손기정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자극받아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운 나머지 손기정에 대한 삼엄한 감시를 펼쳤으며, 이후 손기정의 선수 생활까지 방해하기 시작했다.

손기정은 귀국 이후 1937년, 안암동의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마라토너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조선총독부는 손기정이 주목받는 것을 꺼려하며 주야로 감시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손기정은 보성전문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에 편입하였다. 메이지대학은 마라톤대회에서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으나, 일제는 손기정이 육상대회에 출전하는 것 자체를 막았다. 결국 손기정은 이렇게 선수생활을 마무리하였다.



마라톤선수합숙소 단체 사진.
현관 좌측에 ‘마라톤選手合宿所’라 적힌 현판이,
우측에는 ‘孫基禎’이라 적힌 문패가 달려있다.

해방 이후 손기정은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안암동 자택에 ‘마라톤선수합숙소’라는 현판을 붙이고 전국의 마라톤 유망주 20여명을 뽑아 직접 먹이고 재워가며 훈련을 시켰다. 이에 대한 결실은 비교적 빨리 나타났다. 당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는 서윤복이었는데, 손기정의 가르침에 힘입어 1947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 1950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는 손기정의 가르침을 받은 함기용, 송길윤 최

윤철 등 3명의 선수가 나란히 1위부터 3위까지 거머쥐는 쾌거를 거두었다. 서윤복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 … 후배들을 먹이고 재우며 훈련을 시킨 그 은혜는 또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후배들의 훈련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돌아다니며 모금 운동을 하신 것은 오직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 마라톤의 아버지이자 저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뛰어라!”

… 불호령을 내리시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꺾꺾 웃으시며 등을 다독대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 “조국을 위해 뛰어라” 불호령이 그립습니다(2002. 11. 16. 중앙일보)

이처럼 손기정은 자택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직접훈련을 통해 후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특히 훈련비 마련을 위해 직접 뛰어다녔다. 손기정 마라톤 인생에서 다음 막이 열린 것이다.

손기정은 1953년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재발굴에 나섰다. 대구에서 마라톤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창훈을 서울로 불러 양정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훈련을 맡았다. 그 결과 이창훈은 1956년 멜버른 올림픽대표로 선발되었으며, 1958년 도쿄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 손기정은 국위를 선양한 좋은 선수들을 양성했다는 공로로 1957년 대한민국 체육상(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이후에도 손기정은 지도자이자 체육행정가로서 활동하였다. 1948년 런던 올림픽부터 1964년 도쿄 올림픽까지 마라톤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고,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 1966년 아시안 게임 한국 대표단장 등을 지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1988 서울 올림픽’의 조직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서울 올림픽 당시에는 꿈에 그리던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되어 다시 트랙 위를 뛰기도 했다. 나라를 잃고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비운의 마라토너가 자신의 조국에 유치된 올림픽에서 뛴 것이니 그 감동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성화봉송 당시에는 76세라는 비교적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필적필적 뛰기까지 하였다.

이후 손기정은 다리의 동맥경화증으로 잘 걷지 못하여 바깥 출입을 못하다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대표팀 공동입장, 2002년 한일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까지 지켜보고 같은 해 11월 15일, 향년 90세에 세상을 떠났다.

손기정이 해방 이후 거주하며 마라톤선수합숙소로 쓰며 후학 양성에 힘썼던 안암동 자택은 현재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88 서울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손기정



안암동 손기정 집터에서는 더 이상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주변과 비슷한 모양새의 다세대주택만이 들어서 있을 따름이다. 당시의 합숙소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어떤 길을 후배들과 함께 내달렸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변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남긴 말은 아직 생생히 살아있다.

죽기 전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신의주~부산 간 역전경주 대회에 나가고 싶다.

손기정의 고향이 평안북도 신의주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통일은 끝내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다.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 체육계의 큰 별이 남긴 말이 전해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참고자료

손기정,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한국일보사, 1993.

손환,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2004.

이태진, 「손기정, 마라톤으로 대한독립을 세계에 알리다」, 『한국사 시민강좌』 50, 2012.

하정희, 「스포츠영웅 손기정의 체육활동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중앙대대학원 체육사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손기정 기념관

손기정 기념재단



천년 역사를 하루에 담다

성북문화원 일반회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 : 강원도 원주

글_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문화원에서 처음 맞이한 탐방. 탐방 전 잦은 비 소식에 걱정은 했지만, 기우였을 뿐 탐방 당일 하늘은 맑게 개었다. 약간은 부산스럽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 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탐방지인 원주로 출발하였다.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주는 다른 도와 인접해 있어 행정·사회·문화 등의 중심지로 강원도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천년 고찰 거둔사지부터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 혼이 숨 쉬는 박경리 문학공원까지 원주 곳곳의 명소들을 바빠 돌아봐야 했다.

우리가 먼 길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거둔사지였다. 거둔사는 신라 후기 지어진 절로 조선 전기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금당지 중앙의 불좌대와 그 앞의 삼층석탑, 그리고 무성하게 자란 풀들 사이로 보이는 주춧돌들로 과거의 위용을 가늠해 본다. 자유시간이 주어지자 사진반 선생님은



거둔사지 탑비앞에서 삼층석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님들



거둔사지 삼층석탑

야외수업을 진행하시고, 역사와 문화유산반 선생님은 회원분들과 함께 저 멀리 있는 승묘탑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관찰하시는 등 반마다 개성이 드러난다.

우리는 거둔사지를 한 바퀴 둘러본 후 멀지 않은 곳에 법천사지도 함께 방문하였다. 제법 가파른 계단을 올라 지광국사탑비가 있는 곳에 도착하니 아래 경관이 시원하게 내다보인다. 지광국사탑비는 정교한 조각을 새긴 탑비로 윗부분에는 도솔천이, 측면에는 화려한 용무늬가 새겨져 있다. 문화원 선생님들이 커다란 탁본을 펼쳐놓고 탑비에 새겨진 조각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 모두 옹기종기 모여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에 대해 설명 중이신 김주미 선생님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앞에서

오전의 바쁜 일정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도착한 곳은 원주박물관이었다. 회원분들은 삼삼오오 짝지어 다니시며 전시품을 구경하셨다. 전시물 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단연 중앙홀에 전시되어 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의전 차량이었다. 회원분들은 대통령이 탔던 차의 내부는 어떤가 살펴 보시거나 전시된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저마다의 방법으로 전시물을 관람하셨다.

너무 즐거운 탓에 시간이 흐르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 일정이 밀리면서 다음 탐방지였던 원동성당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하고 우리는 강원감영으로 향했다. 감영의 입구인 포정루에서부터 재미있는 성당을 가지 못해 아쉬워하던 회원님들 얼굴에 금세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어났다. 감영 마당에는 투호, 곤장틀 등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모두 익살스런 표정으로 주리를 틀거나 곤장을 때리고 맞는 흥내를 내는 덕에 감영을 구경하는 내내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곤장 체험 중인 강성봉 사무국장과 백외준 팀장



강원감영 선화당(정청)에서

오늘의 마지막 방문 장소는 박경리문학공원이었다. 고 박경리 선생님은 오랜 기간 정릉 골짜기 작은 양옥집에서 사시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 오시다가 원주에서 말년을 보내셨다. 우리는 박경리 선생님의 굴곡진 삶을 짧은 영상으로나마 접하고 전시실을 둘러보며 박경리 선생님의 흔적을 좇았다. 전시실을 나온 뒤 돌담을 따라 들어간 박경리 선생님의 옛집은 선생님이 살아계셨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바로 보이는 선생님의 핸드프린팅 위에 내 손을 포개어 보니 단박에 다 가려질 정도로 작았다. 그 작은 손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수많은 명저를 써내신 게 새삼 신기했다.

박경리문학공원에 다녀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짧고도 긴 원주탐방이 끝났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니 신라시대의 고찰부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소설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까지 실로 천년의 시간을 하루 만에 다 둘러보았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본다는 것이 역사탐방이 가진 매력일 것이다. 오랜만의 탐방은 반복되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문화원 회원님들도 오늘 하루가 즐거운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



박경리 선생님의 집필실



박경리 선생님과 함께

2018 성북문화원 소식



가을바람과 함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성북문화원 일반회원 하반기 역사문화탐방 : 강원도 철원

글_ 이재민(성북문화원 마을기록아카이브팀 연구원)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땅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용암이 흘러 천혜의 자연경관이 만들어질 줄, 한 나라의 도성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고작 선 하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곳이 될 줄 이 땅은 알고 있었을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 이곳은 강원도 철원군이다. 여느 탐방과는 달리 이번 탐방은 발걸음이 가볍지는 못했다. 솔직히 철원이라는 곳이 밝고 희망찬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철원행 탐방 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피안사 천왕문 앞에서



가을 햇살 아래에서

개인적으로도 철원은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 특별히 이번에는 탐방 코스 기획을 담당했기 때문에, 탐방의 전 과정은 그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해온 상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탐방은 늘 설레는 일이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와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찾는 대상은 달라진다. 가봤던 곳을 또 가도 마찬가지다. 매번 달라지는 상황과 조건은 탐방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첫 목적지인 도피안사. 이 세상 번뇌를 다 내려놓고 잠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으로 들어갔다. 단풍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을 햇살은 이곳이 피안의 세계임을 알려주었다. 썩아아 썩아아.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단풍잎을 떨어뜨리는 소리. 사진반의 즉석 현장 수업이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고 찍은 사진을 서로 보여주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아래쪽 건물 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삼삼오오 모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셨다. 작은 경내지만 여기저기 둘러보며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보였다. 모두가 잠시 벗어난 일상에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도피안사 3층 석탑 설명



도피안사 경내 전경



고석정 내려가는 길



한탄강을 배경으로

점심을 먹고 도착한 고석정은 가파른 경사와 계단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설명을 위해 먼저 내려가서 잠시 상황을 지켜봤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계단씩 천천히. 좋은 경치는 빨리 봐야 한다면서 성큼성큼 내려오신 분들은 커다란 바위를 배경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계셨다. 여기서는 설명보다 경치 구경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다. 눈으로 담고 사진으로 남긴 한탄강 기암괴석 고석정 바위였다.

오후 2시. 해설사의 인도를 따라 민간인 통제 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지뢰 매설선은 안보관광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다. 첫 코스인 제2땅굴에 왔다. 단체 관광을 온 학생 버스 여러 대가 보였다.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게 시간을 짜놓았지만 보기 좋게 어긋나버렸다. 일단은 땅굴 안으로 진입. 예상대로 바글바글했지만 분위기는 좋았다. 좁은 통로에서 서로 길을 비켜주며 학생들과 회원분들이 반갑게 인사했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실감한 세대와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간의 만남이 땅굴에서 이루어진, 참으로 신기한 우연일 따름이다.

땅굴을 나와 도착한 곳은 DMZ 통일 전망대. 창문 너머 펼쳐진 공간은 약 70여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였다. 저 멀리 태봉국 도성 터가 희미하게나마 보였다. 군사분계선과 경원선으로 인해 네 등분 되어버린 도성 터 위엔 수목만이 무성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분은 우두커니 서서 묵묵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다. 땅굴 속에서 북한군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시던 분은 DMZ 사진 촬영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듣고 아쉬움을 토로하셨다. 마음 한 구석이 먹먹해졌다. 분단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느끼셨을 분들일 테니 말이다.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 일단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사히 다녀왔다는 점에 안도했다. 그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몇몇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따사로운 햇볕을 맞으며 한가로이 경내를 거닐던 모습, 손에 손을 맞잡고 고석정을 오르내리던 모습, 서로 인사하며 땅굴을 지나가던 모습. 일상적인 공간이나 평범한 관광지가 아닌,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철원이었기에 이러한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닐까.



지금은 멈춰버린 월정리역 기차



노동당사

철원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다르다. 마을 곳곳에는 군사훈련시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농번기에도 농지 출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한탄강이 만들어낸 빼어난 경치와 용암대지 위로 펼쳐진 평야를 활용한 안보·생태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구 철원 시가지 곳곳에는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철원은 여전히 비어있고, 무겁고, 적막하다.

바라기는 철원이 이제는 일상의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특별한 공간이 아닌, 한국의 많은 관광지 혹은 평범한 지방 도시 중의 하나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상처들은 다 씻겨 나가고 저 넓은 평야 위에서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고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시원스럽게 흘러가는 한탄강이 되었으면 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바람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남북현장검증단이 GP(Guard Post)파괴 검증을 완료하였다. 냉랭했던 남북관계가 평화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속히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본다.

2018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2018년에도 생활예술을 실천하며 자기계발에 매진한 성북문화원 회원들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치러지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고, 그 가운데 여러 회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전하며, 문화강좌를 통해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펼치는 회원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합니다.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문예창작실기	임진희	제13회 생활문예대상 입선 제14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맥심상『인생의 바다』
사군자	이발	2018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장려상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함곡관산양(이명 선생 시)』 제16회 대한민국서예문화대전 특선『名在山林處士家』
선소리산타령	나명순 외 안계영 외 6명	제16회 대한민국 여성전통예술경연대회 단체부 민요 부문 동상 제5회 벽과 국악 대제전 전국 국악경연대회 단체부 장려상
	조성란	제7회 청주아리랑 전국 국악경연대회 신인부 동상
	차지현	제24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민요 신인부 장려상
	차지현 외	제2회 보은 전국 국악경연대회 명인부 민요 부문 대상
	최순화	제7회 닛개 우리소리 전국 국악경연대회 대상(단체부)
		제7회 청주아리랑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수묵산수화	류보영	제5회 한국서예신문대전 한국화 부문 특선 제5회 정선풍경 미술대전 입선 제18회 대한민국해동서화대전 특선
시낭송가 양성과정	김인영	제1회 시골리오 전국 좋아하는 시 낭송대회 장려상
	김종남	제1회 시골리오 전국 좋아하는 시 낭송대회 은상
	박순희	제1회 시골리오 전국 좋아하는 시 낭송대회 동상
	이미숙	제1회 시골리오 전국 좋아하는 시 낭송대회 장려상
유화로그리는인물화	김옥희	제18회 한국회화의 위상전 우수상
	최서연	제18회 한국회화의 위상전 우수상
한국무용	조부자 외 6명	2018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전통무용 부문 장려상
한글서예	김진순	제16회 대한민국서예문화대전 입선 제32회 대한민국서예·미술공모대전 특선(한글)
한문서예	박성희	2018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장려상
	박영옥	제1회 4·19혁명 서예대전 대상
		제19회 강암서예대전 휘호대회 우수상
		제6회 자암 김구 전국 서예대전 차중(한문)
		제5회 단샘글씨겨루기 한문 부분 일반부 우수상
		2018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최우수상
		제31회 정부인안동장씨(장계향)추모여성회화대회 대상(일반부)
		제6회 대한민국 포은서예회화대회 일반부 우수상

* 2017년『성북문화』제5호에 실리지 못한 수상 내역입니다.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선소리산타령	임정호	제6회 청주아리랑 전국 국악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수상 사진



사군자 | 이발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 김옥희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 최서연



한국무용 | 조부자 외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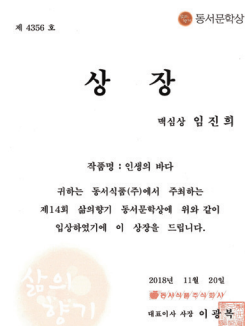


한문서에 | 박성희(오른쪽에서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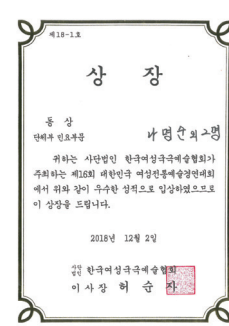


한문서에 | 박영옥(왼쪽에서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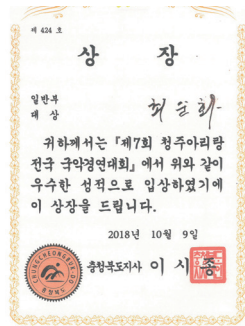
상장 사진



문예창작실기 | 임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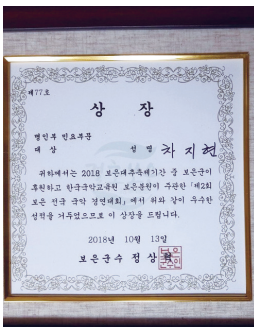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 | 나명순 외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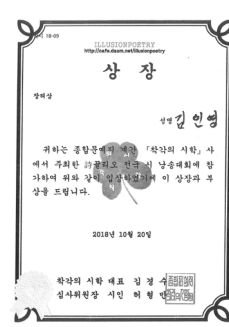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 | 최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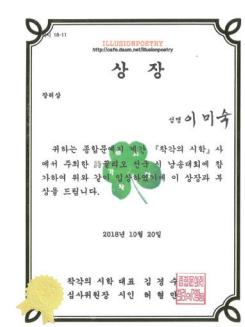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 | 조성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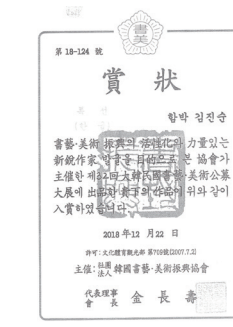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 | 차지현



시낭송가양성과정 | 김민영



시낭송가양성과정 | 이미숙



한글서예 | 김진순

2018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2018년 여름 뜨거웠던 날씨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성북천에 깃발이 남실거렸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타임머신 타고 성북여행’을 주제로 한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총 66점, ‘성북구 문인 이육사’를 주제로 한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 총 50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총 115점이 깃발에 담겨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성북의 문화재와 문인들에 대한 애정을 돈독히 하고 예술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제9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타임머신 타고 성북여행



대상

신우용(석계초 5)

〈자~ 떠나볼까! 성북으로의 시간여행〉



최우수상

임지현(돈암초 2)

〈성락원에서의 즐거운 오후〉



최우수상
진세민(석계초 4)
〈질서를 잘 지키는 성북구에 놀러 가 봐요!〉



우수상
박예준(돈암초 6)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성북여행〉



우수상
위고은(석계초 6)
〈성북의 과거로 go go~〉



우수상
이세봄(석계초 1)
〈성북구로 떠나는 무지갯빛 시간여행〉



가작
박민규(삼선초 5)
〈미래의 성북구 도시〉



가작
박준서(석계초 3)
〈성북을 책임지는 어벤져스〉



가작
이도연(석계초 3)
〈미래의 성북 솜사탕나무〉



가작
임채정(석계초 3)
〈성북여행을 시켜주는 자판기〉

제9회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성북구 문인 이육사

[한글서예 부문]

절정
매운 제철의
채찍에 갈져
마침내 북방으로
힘쓸려 오라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나고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나

어데나 그 뜻을
끊어야 하나
한 발 재저
디길 곳조차 없다
이러매 늘 강아
생각해 볼 밖에
저울은 강철로 된
우지개가 보나
이육사님의 시를 느낀다
우향 박성희

대상
박성희
〈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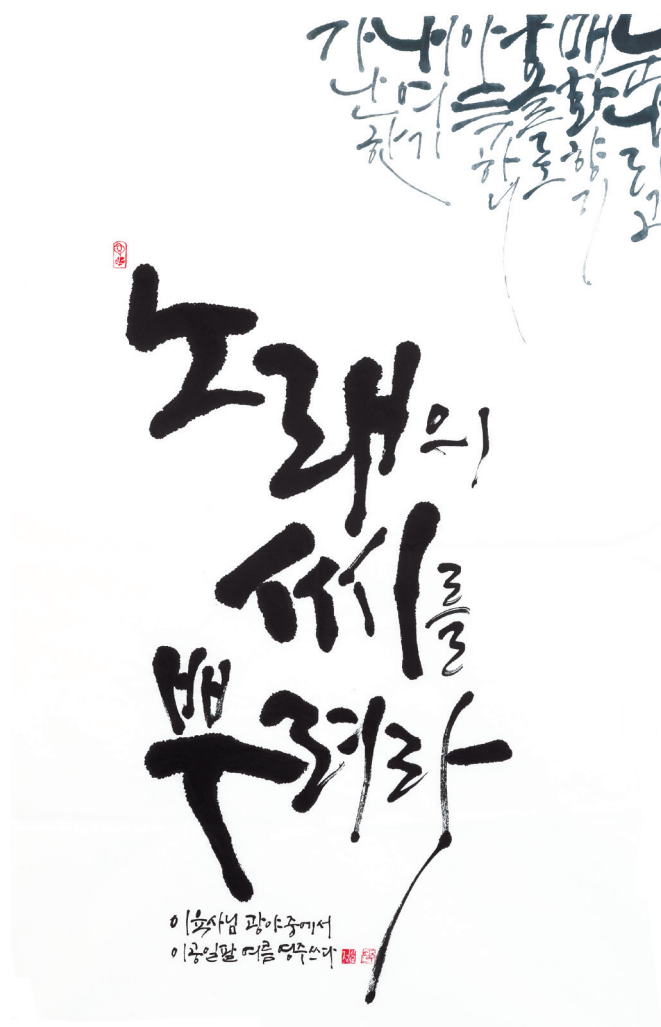
송정 최승인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의
파후를 얻어다

솔 띄이 죽자

다 시 천 고 의 뒤 에 백
마 타 고 오 는 초 인 이
있 어 이 광 야 에 서 목
놓 아 부 르 게 하 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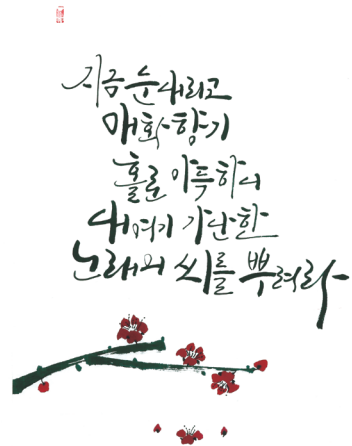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부문]



대상
정인선(영주)
〈이육사 '광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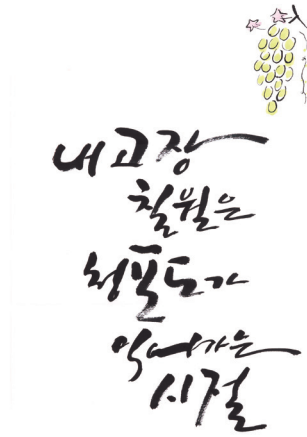
최우수상
고선영
〈광야〉



최우수상
장기옥
〈광야〉



이름사 '청포도' 안에니
우수상
김경애
〈청포도〉



이름사 '청포도' 안에니
우수상
오두석
〈청포도〉

사진으로 보는 2018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성북문화원은 2018년에도 지역문화의 발전과 주민 문화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18년 달력 한 장을 남겨 놓고 뒤를 돌아보니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활동과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 및 문화원 회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18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뻐해주시고, 성북문화원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성인 강좌(33개)

가야금병창, 규방공예, 경기민요,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단소,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민화, 사군자, 사진작가, 중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선소리산타령, 수묵산수화A, 수묵산수화B, 수채화&데생,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1), 원어민영어회화(중급2),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원어민중국어회화(중급), 웰빙실용풍수,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장구, 테라피요가, 팝송영어, 한국무용(초·중급), 한국무용(심화), 한글서예, 한문서예A, 한문서예B

어린이 강좌(10개)

어린이 놀이미술A, 어린이 놀이미술B, 두뇌개발어린이 주산A, 두뇌개발어린이 주산B, 어린이가야금병창,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유아발레 Level1, 유아발레 Level2



유아발레 Level 1/2



어린이 놀이미술 A/B



두뇌개발어린이 주산 A/B



원어민유아영어(기초/초급/중급)



민화



수채화&데생



장구



스포츠댄스



한문서예



수묵산수화 A/B



원어민영어회화(초급/중급1/중급2/고급)



팝송영어

향토문화 계승 및 문화탐방 사업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상반기(2018.05.24. 강원도 원주 일대)



일반회원 역사문화탐방 하반기(2018.10.24. 강원도 철원 일대)



2018 성북문화아카데미(2018.09.17.~28. 한양도성 및 성북동 일대)



2018 성북동주민아카데미 "성북동의 미술가들"(2018.10.02.~20 성북문화원 및 성북동 일대)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3·1운동 99주년 기념 만해로드 학술회의(2018.02.25.~28. 러시아 극동지역)



4·19혁명 58주년 기념 문화제 “4·19혁명과 제2공화국”(2018.04.19. 아리랑시네센터)



2018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희흠낙”(2018.04~11, 성북문화원, 성북동성당)



성북구 문학주간행사 "여담: 다시 타오르는 말들"(2018.05.08.~18. 성북문화원, 종암동 주민센터)



성북동문화재 야행(봄) "빛과 소리의 길"
(2018.06.22.~23. 성북동 일대)



성북동문화재 야행(가을) "가을걸음"
(2018.09.14.~15. 성북동 일대)



만해 한용운 선사 74주기 추모 다례제(2018.06.29. 성북동 심우장)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창작뮤지컬 “심우”(2018.06.16.~30, 성북동 심우장)



정전협정 65주년 기념 학술회의 “정전에서 중전으로, 그리고 평화로”(2018.07.27, 성북구청)



2018 성북천 깃발전(2018.08.01~23, 성북천 일대)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결국 그 벽을 넘는다"(2018.08.15. 성북구청)



2018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예술에 빠져드는 나날"
(2018.08.21.~30.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동작은갤러리)



2018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예술에 빠져드는 나날"
(2018.09.01. 성북구청 바람마당)



2018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그날이 오다 독립, 그리고 평화의 날"
(2018.07.28/09.01/09.29 성북천 분수마루, 성북구청 바람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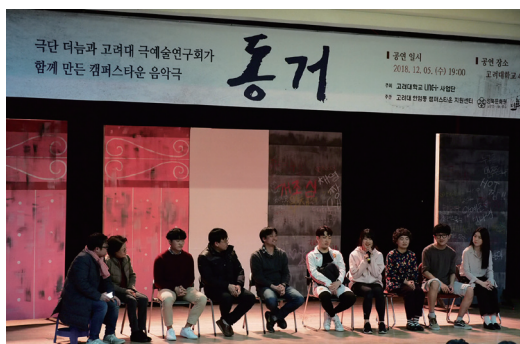




2018 서울시문화원 엑스포(2018.10.17, 서울 광화문 광장)



안암동 캠퍼스 타운 지역문화축제 “끌어안암”(2018.10.27, 안암동 참살이길 일대)



안암동 대학생 주거 공연예술프로젝트 “동거”(2018.12.05, 고려대학교)

경연대회



2018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2018.06.01, 중구구민회관)



2018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2018.09.07, 중구구민회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교류협약



서울특별시립 성북청소년수련관(2018.06.11.)



성북구재향군인회(2018.08.13.)



기타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성북문화원 벽화 작업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성북구, 한용운 선사 입적한 심우장서 ‘3·1운동 99주년 기념 선포식’ 가져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서울 성북구는 28일 한용운 선사가 입적한 성북동 심우장에서 ‘3·1운동 99주년 기념 선포식’(사진)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99년 전 꺾이지 않는 독립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법세계적으로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다양한 운동으로 이어진 3·1운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선포문 낭독, 소리극 ‘심우장 가는 길’ 공연, 오늘의 시선으로 접근한 3·1운동에 대한 강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날 선포식은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의 ‘러시아 극동지역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만해로드 대장정’의 종착지로 만해 한용운 선사를 비롯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만해로드 대장정’은 조국의 독립과 전 세계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연해주 지역을 방문했던 만해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으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다. 항일독립유적지와 한인마을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크라스키노 지역 등을 탐방했으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소속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충남 홍성군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탐방지는 성북문화원과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성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 관계자는 “탐방지는 독립투사의 항일독립유적지와 한인마을이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교육적 가치는 물론 독립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만해 선사가 성북동 심우장으로 옮긴 후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성북동, 정릉 일대에서 활동했다”며 “만해로드 대장정과 3·1운동 99주년 선포식을 통해 만해 선사를 비롯한 독립투사의 애국애족정신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해가는 오늘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문화일보》, 2018.03.0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2.28	경향신문	“죽더라도 빼만은 조선 땅에...” ‘하나 된 독립운동’ 꿈꾼 만해
2	03.01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과 3.1절 99주년 의미?
3	03.01	문화일보	성북구, 한용운 선사 입적한 심우장서 ‘3·1운동 99주년 기념 선포식’ 가져

서울 성북구, 4·19 혁명 기념학술제 개최

기사승인 [2018-04-15 06:00]



4·19 혁명 기념학술제 포스터. / 제공=성북구

19일 오후 7시 아리랑시네센터서 강연·토크·음악공연 진행

아시아투데이 정기철 기자 = 4·19 혁명의 진원지 서울 성북구에서 기념학술제가 열린다.

성북구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4·19 혁명과 제2공화국’을 주제로 올해 네 번째 4·19 혁명 기념학술제를 19일 아리랑시네센터(성북구 아리랑로 82)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연과 토크콘서트 외에도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음악 공연을 마련했다. 오후 7시에는 유성호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가 ‘4·19 혁명과 한국문학’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한다.

8시 10분부터는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이 토크 콘서트 ‘제2공화국기의 한국 사회’를 진행한다. 특별 강연과 토크 콘서트 사이에는 지역 예술단체 슈필렌이 4·19 혁명 및 민주화운동 관련 노래와 음악

공연을 펼친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는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다수 소재해 각 학교에 재학하는 청년과 청소년이 주체가 돼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함으로써 4·19 혁명의 진원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체육·퍼포먼스·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며 “광장의 민심을 어떻게 정치권이 흡수해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2018.04.1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4.14	아시아경제	4·19혁명 진원지 성북구에서 펼쳐지는 기념 학술제
2	04.15	신아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제4회 4·19혁명 기념학술제’ 개최
3	04.15	아시아투데이	서울 성북구, 4·19 혁명 기념학술제 개최



사회 > 일반

성북구, 2020년까지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8-03-07 15:37 송고



김영배 성북구청장(오른쪽)과 조태권 성북문화원장이 지난 6일 성북구청에서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청 제공) News1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성북문화원과 5년에 걸쳐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해 구청 기획예산에 기록관리팀을 신설해 마을기록 관리체계(아카이브) 구축과 확산 전략을 구상해왔다.

6일 성북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2년까지 5년간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의 마을기록 관련 사업은 수집·전시 위주이거나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자료 검색과 가공이 어렵고 기록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고도화된 마을기록 표준분류체계 개발 및 자료 축적, 개별 기록 간 연결망 구축, 마을기록을 온·오프라인과 연계한 융합콘텐츠 개발 등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민간기업이 비교적 적은 성북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2018.03.07.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3.07	뉴스1	성북구, 2020년까지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
2	03.07	신아일보	성북구, 마을기록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3	03.07	한강타임즈	성북구, 신개념 미래지향적 마을기록 관리체계 구축 나서
4	03.07	아시아경제	성북구, 新개념 마을기록 관리체계 구축
5	03.07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마을자료 디지털연결망 구축

성북구 대표문인 5인 기리는 문학강연 '여담'

이육사·조지훈·박경리·박완서·김소진 작품세계 탐구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8-05-06 16:26 송고



성북구 문학강연 '여담' 포스터(성북구 제공)©News1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와 성북문화원은 8~18일 한국 근현대문학을 이끈 이육사, 조지훈, 박경리, 박완서, 김소진을 기리는 문학 강연 '여담 : 다시 타오르는 말들'을 개최한다.

강연이 열리는 5월은 시인 조지훈 서거(1968년 5월17일) 50주이자, 소설가 박경리의 서거(2008년 5월5일) 10주기가 되는 달이기도 하다.

이번 강연은 성북문화원과 중앙동 주민센터 등 성북구 일대에서 열린다. 소개되는 문인들은 모두 성북구와 인연이 깊다.

소설가 김소진은 1980~90년대 길음동 산동네를 배경으로 도시민의 삶을 그렸다. 박완서는 1970년대 사대문 밖 신흥주택지 보문동 골목의 풍경을 담았다. 박경리는 정릉동에서 '토지'를 집필했다.

시인 조지훈은 성북동에 살며 여러 시집들을 펴냈고, 이육사는 중앙동에서 '청포도', '월정'과 같은 명시를 써서 발표했다.

8일 첫 강연은 동소문동 성북문화원에서 열리며 문학평론가 한영인씨가 '미아리의 복화술사'라는 이름으로 길음동에 살았던 김소진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10일과 15일에는 정용준 서울예대 교수가 '박완서, 라는 꿈', '박경리가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17, 18일에는 김중훈 고려대 교수가 조지훈과 이육사의 삶과 시를 재해석해 들려준다. 문의는 성북문화원 (070)8670-1635.

《뉴스1》, 2018.05.06. 기사 발체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5.05	뉴시스	성북구, '여담 : 다시 타오르는 말들' 문학 강연
2	05.06	뉴스1	성북구 대표문인 5인 기리는 문학강연 '여담'
3	05.07	신아일보	성북구, 문학 강연 '여담, 다시 타오르는 말들' 개최
4	05.07	아시아경제	이육사·조지훈·박경리·박완서·김소진 기리는 문학강연 펼친다
5	05.08	내일신문	박경리의 정릉동, 박완서의 보문동
6	05.16	뉴스페이퍼	정용준 소설가, 박완서의 여성 인권을 위한 투쟁에 대해 말하다

HOME > 문화 > 종합

만해 한용운 추모 창작 뮤지컬 "심우", 오는 30일까지 매 주말 무료 공연!

☞ 육문수 기자 | ☎ 승인 2018.06.19 01:46

[뉴스페이퍼 = 육문수 기자]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해, 성북문화원은 성북구 소재의 극단 '더늠'의 창작 뮤지컬 "심우"를 6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성북동 심우장에서 총 7회 공연한다고 전했다.



<만해 창작 뮤지컬 "심우" 포스터. 사진 출처 = 성북문화원>

30분가량의 짧은 뮤지컬 "심우"는 만해 선사가 심우장에서 겪었던 아픔과 희망을 노래와 연기로 표현하고 있다. 뮤지컬은 전회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심우장을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지난 16일 첫 공연에는 뮤지컬 직후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의 음악공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는 22일과 29일, 29일 공연은 오후 4시에 진행되며 30일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1시로 총 2회 진행된다. 29일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 74주기를 맞아 오후 10시에 "추모 다례제"가, 오후 4시에 "추모 예술제"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뮤지컬 공연은 물론 예강의 "님에게 포도주를 바치다", 록밴드 빈티지프렌키의 만해 시로 만든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성북문화원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노래와 훌륭한 연기를 볼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라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뉴스페이퍼》, 2018.06.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6.19	뉴스페이퍼	만해 한용운 추모 창작 뮤지컬 "심우", 오는 30일까지 매 주말 무료 공연!

‘지붕없는 박물관’ 성북동 밤길로의 초대

김도연기자 kdvchi@munhwa.com

- 22, 23일 ‘문화재 夜行’

홀로그램·프로젝션 매핑 등
문화재에 디지털 기술 접목

‘가족뮤지컬’ ‘해설투어’ 진행
전통소리·춤 ‘성북명민전’도

“고즈넉한 여름밤,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의 곳곳을 걸어보세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은 한용운, 조지훈, 전형필, 김기창, 염상섭, 최순우, 윤이상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의 삶과 창작 활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유택인 심우장,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미술사학자로 평생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최순우의 옛집, 조선시대 말 거부이자 보인학교 이사장을 지낸 이종석이 1900년쯤 지은 것으로 알려진 별장은 물론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한양도성 등 곳곳에 근현대 문화재가 산재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한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런 성북동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성북구는 오는 22~23일 오후 6~10시 ‘2018 성북동 문화재 야행’을 성북동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특히 성북동의 유·무형 문화재에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환상적으로 전할 계획이다.

또 이생강(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조영숙(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 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여하는 점도 이번 야행의 특징이다. 이들은 우리 전통의 소리와 춤을 선보이는 ‘성북명민전’을 이끈다.

부채, 매듭, 전통서책 등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지난해 가족 방문객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가족뮤지컬 ‘깨비깨비 돌도깨비’는 올해도 우리옛돌박물관을 배경으로 공연된다.

전문해설자와 함께 걷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다. 방우산장-조지훈 집터-윤이상 집터-최순우 옛집-마전터-선잠단지-이종석 별장-이태준 가옥-심우장으로 구성된 기본코스(총 60분 소요)와 만해산책공원-심우장-북정마을-북악순성길-각자성적으로 구성된 순성코스(총 80분 소요)가 있다.

어르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투어를 추천한다. 버스는 선잠박물관-성북구립미술관-심우장-최순우 옛집 등을 돌며 5분 간격으로 정차한다.

《문화일보》, 2018.06.1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6.14	내외뉴스통신	빛과 소리의 길, '성북동 문화재 야행'
2	06.18	아시아경제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밤 길 걸어볼까?
3	06.18	신아일보	성북구, '제2회 성북동 문화재 야행' 개최
4	06.18	아시아경제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역사 보고' 효창공원 역사 탐방
5	06.18	뉴스1	22~23일 여름밤 역사문화 축제 '성북동 문화재 야행'
6	06.18	시민일보	성북구, 성북동 문화재 무료 탐방 행사 22·23일 개막
7	06.19	뉴스페이퍼	2018 성북동 문화재 야행, 빛과 소리 주제로 성북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벤트!
8	06.19	문화일보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밤길로의 초대
9	06.19	스포츠동아	성북동 문화재 야행, '빛과 소리의 길' 걸어볼까
10	06.19	트래블바이크뉴스	'2018 성북동 문화재 야행 - 빛과 소리의 길' 개최
11	06.20	아시아타임즈	정용준 소설가, 박완서의 여성 인권을 위한 투쟁에 대해 말하다
12	06.20	아주경제	"성북동 야행에 초대합니다"... 성북구, 22~23일 문화재·문화시설 개방
13	06.21	서울신문	밤에 떠나는 성북동 문화 산책
14	06.21	머니S	[떠나요 강심장] 문학과 역사를 그리며... 성북동 문화재야행
15	06.22	헤럴드경제	이번 주말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夜行 어때?
16	06.24	아시아경제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밤 매력에 푹~

성북문화원, '정전, 종전, 그리고 평화로' 27일 학술회의

정전협정 65주년 기념 학술회의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 입력 : 2018.07.26 16:38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611520765668&type=1> **북사**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관)이 27일 정전협정 65주년 기념 학술회의 '정전에서 종전으로, 그리고 평화로'를 개최한다.

27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는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2018년은 정전협정 65주년이며, 3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해로,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해로 학술회의를 준비하게 됐다는게 문화원의 설명이다.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미아리고개 등이 소재하는 성북구는 정전, 종전,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이기도 하고 심우장(만해 한용운 고택) 등 애국지사의 흔적이 서린 곳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학술회의에서는 우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김보영 선임연구원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성북문화원 백외준 성북학연구팀장이 '한국전쟁 기간 최익환, 박진묵의 정전협상'라는 주제로, 또 성신여대 문화내러티브전공 김준현 교수가 '한국전쟁과 1950년대 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박진묵과 최익환은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로 굽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들이다. 박진묵은 해방 뒤 건국준비위원회 남로당 등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동쪽상잔의 비극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며 미군의 도움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이례적인 중전운동을 벌였다. 최익환은 해방 후 미군정 시절 민주위원의 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이후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세 주제에 대한 토론은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김선호 HK연구교수, 역사문제연구소 한봉석 연구원,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정영진 초빙교수가 맡았다. 이와 더불어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그룹 슈필렌이 '비록'·'그리운 금강산' 등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노래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성북구 재향군인회(회장 박상찬)와 공동주최하며, 재단법인 대한국인(이사장 조정열)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머니투데이》, 2018.07.26. 기사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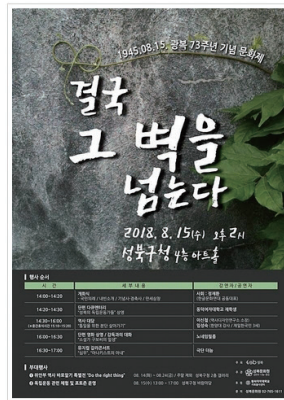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7.26	머니투데이	성북문화원, '정전, 종전, 그리고 평화로' 27일 학술회의



사회 > 일반

광복의 역사적 의미는...성북구 기념문화제

(서울=뉴스1) 이현일 기자 | 2018-08-14 17:28 송고



성북구 광복 73주년 기념문화제광복 그 벽을 넘는다 포스터(성북구 제공)©News1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5일 오후 2시 구청에서 광복 73주년 기념문화제 '결국 그 벽을 넘는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해방과 분단',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오늘날 광복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묻는 대담, 공연, 기념영상 상영,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역사대담 '통일을 위한 분단 살아가기'는 광복과 분단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다룬다. 이신철 역사디자인연구소장과 임성숙 한양대 강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광복 이후 분단과 남북한의 변화, 구보 박태원을 비롯한 월북 문인들의 활동, 재일조선인 및 귀환자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구보 박태원의 광복 전후 파란만장한 행보를 조명한 단편영화 '소설가 구보씨의 일생'과 성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 소재로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도 상영한다.

극단 더듬은 갈라콘서트를 선보인다.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무대에 오른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태극기 목판인쇄와 독립운동가 인물 포토존 체험이 마련된다. 또 14일부터 24일까지(주말 제외) 구청 2층 갤러리에서는 세계 각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록과 현실을 다룬 작품을 보여주는 특별전시 'Do the right thing'이 진행된다.

《news1》, 2018.08.14.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8.14	아시아경제	'독립운동가 도시' 성북구,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2	08.14	한강타임즈	성북구,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결국 그 벽을 넘는다'
3	08.14	여성종합뉴스	성북구 '해방과 분단, 평화와 통일을' 주제〈결국 그 벽을 넘는다〉
4	08.14	시사경제신문	광복72주년 기념 문화제, 독립운동가의 도시 성북에서
5	08.14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광복 73주년 기념 문화제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개최
6	08.14	news1	광복의 역사적 의미는...성북구 기념문화제

성북 골목 밤마실 14~15일 '가을걸음'

입력 : 2018-09-12 22:34 | 수정 : 2018-09-12 23:24



지난해 성북동 문화재 야행 기간 동안 개방된 만해 한용운의 고택 심우장에서 뮤지컬 '심우'가 공연되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14~15일 가을밤 골목길을 걸으며 성북동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2018 성북동 문화재 야행-가을걸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구는 "지역 주민, 성북구 소재 8개 대학 재학생, 성북 지역에 연고를 둔 예술단체가 참여해 지역적 개성을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성북동 문화재 야행의 백미인 투어 프로그램은 방우산장에서 이태준 가옥(수연산방)까지 이어지는 기본 코스(60분 소요)와 만해 산책공원(심우장 입구)에서 각자성석(경신고 뒤편)까지 이어지는 순성 코스(80분 소요)로 구성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주도해 만든 협동조합 '성아들'(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운영한다"며 "해설자와 함께 성북동을 걸으며 성북동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서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야행 기간 심우장, 최순우 옛집, 이종석 별장 등 성북동 대표 문화재와 성북구립미술관, 한국가구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개방된다. 클래식, 창작극, 국악 등의 공연과 전통 바느질 기법을 활용한 컵 받침 만들기, 한복 머리장식 배씨 땀기 만들기, 사군자 부채 만들기 등 체험 거리도 풍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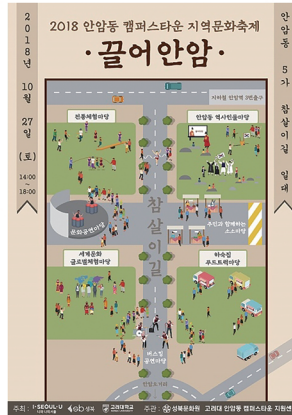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문화일보》, 2018.09.12.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9.07	동아일보	가을바람이 살랑살랑...‘밤마실’ 하기 딱 좋은 심야여행지
2	09.07	조선일보	[friday] 파란 하늘 벗 삼아 성곽길 나들이... 오래된 골목 따라 뚜벅뚜벅, 옛집·맛집들이 반겨주네요
3	09.12	서울신문	성북 골목 밤마실 14~15일 ‘가을걸음’
4	09.12	아시아경제	2018 성북동문화재 야행 ‘가을걸음’
5	09.12	헤럴드경제	성북구 “성북동 문화야행으로 추억 쌓으세요”
6	09.12	뉴스1	성북동 밤길 거닐며 역사탐방...성북구 투어프로그램
7	09.12	신아일보	성북구, 2018 성북동문화재야행 ‘가을걸음’ 개최
8	09.12	시민일보	성북구, ‘성북동 문화재 야행’ 14일부터 개최
9	09.12	국토매일	이번 주말 가을밤 성북동의 매력으로 풍덩
10	09.12	시사경제신문	성북동 문화재 야행 ‘가을걸음’ 속으로 풍덩
11	09.13	서울신문	성북 골목 밤마실 14~15일 ‘가을걸음’
12	09.13	문화일보	“이번 주말 ‘성북동 야행’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13	09.13	독서신문	9월 2주 가 볼만한 곳 추천

성북구, 고려대와 지역문화축제 ‘끌어안암’ 개최

이문철 기자 | 2018.10.24



2018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역문화축제 '끌어안암' (안네모스티(무)로-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안암동5가 참살이길 일대에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역문화축제 ‘끌어안암’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와 고려대가 협력하는 이번 행사는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지 내 지역주민, 상인, 학생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안암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역사인물마당 △전통체험마당 △문화공연마당 △주민과 함께하는 소소마당 △세계문화체험마당 △하숙집 푸드트럭 마당 등 6개의 마당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역사인물마당과 전통체험마당에서는 손기정, 나운규, 오세재, 박한영 등 안암동과 관련 있는 역사인물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시와 한국 전통 민속놀이 체험, 안암동 문화유산 투어 프로그램 등이 준비돼 있다.

문화공연마당에서는 2개의 무대에서 미술스, 아프리카 공연팀, 버스킹 공연팀들의 공연과, 난타공연, 고려대 농악대의 길놀이 공연 다채로운 공연들이 30분 단위로 행사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소마당에서는 바자회, 음식판매, 대학입시 멘토링 부스가 마련됐다. 세계문화 글로벌 체험마당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행게리이에 담아 판매하는 글로벌트럭 마켓과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하숙집 푸드트럭 마당에서는 고려대 인근 하숙집 사장님들이 요리솜씨를 발휘해 학생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안암동 일대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는 기폭제가 돼 신촌에서 몇 시, 강남에서 몇 시에 보자고 약속하듯 안암동 또한 젊은이들이 약속을 잡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암동 일대에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젊은 세대의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과 함께 지역 내·외의 인구 유입 요소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2018.10.24.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10.24	아시아경제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역문화축제 ‘끌어안암’ 개최
2	10.24	신아일보	성북구, 고려대와 지역문화축제 ‘끌어안암’ 개최
3	10.24	전국매일신문	성북구, 이번 주 토요일은 안암에서 만나요
4	10.26	서울신문	“토요일, 안암에서 뭉치자”...성북구, 오는 27일 고대 안암동서 ‘끌어안암’ 개최

2018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 그룹 회장

부원장

서영수 前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회장

이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신한 대성 사장
김영일 (주)태명실업 회장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정상옥 前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학예실장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 회장

감사

정호섭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운영위원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장
계영선	영 라인의원 원장
고윤근	前 성북구의회 의장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고문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서세옥	前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이병무	(주)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주)피존 회장
이의순	(주)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승소	(주)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최만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남각	삼양통상(주) 회장

명예고문

김성배	한진관광 부회장
양대길	영우통상(주) 회장
윤덕병	(주)한국야쿠르트 회장

2018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계영선, 권아름, 김경서, 김금숙, 김명희, 김용준, 김용진, 김유영, 김육영, 김은화, 김의성, 김장현, 김주미,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병호, 박상찬, 박영순,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배재현, 변성진, 서준석,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강한, 이건자, 이동규, 이상림, 이상훈, 이석권,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주현, 이준성, 이종민, 이현주, 임석규, 임정훈, 전원호, 정병기, 정상옥, 정영, 정지연,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한동현, 홍선희, 황장훈, 황재호

기관·단체

교육기업 함께늘봄, 남양유업주식회사, 대성산업가스(주), 엘에스엠트론(주), (주)광주요, (주)더비즈링크, (주)질경이우리웃, (주)태명실업, (주)효성,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회회낙락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고기 굽는 마을(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6)



영라인의원(서울 성북구 성북로 6길 4)



탭하우스F64(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자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금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19년 월 일

후원인: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84기 봄 / 85기 여름

성북문화원

수강생 모집

깊은 멋 · 나눔 · 즐길 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강좌일정	84기 봄학기 03~05월(12주)	85기 여름학기 06~08월(12주)
강좌기간	2019.03.04 (월) ~ 2019.05.24 (금)	2019.06.03 (월) ~ 2019.08.23 (금)
접수기간	2019.02.01 (금) ~ 2019.02.28 (목)	2019.05.01 (수) ~ 2019.05.31 (금)
수업무료참관기간	2019.01.21 (월) ~ 2019.01.25 (금)	2019.04.22 (월) ~ 2019.04.26 (금)

※ 수업무료참관 관심있는 강좌의 참관을 통하여 강좌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필수)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문의전화 02-765-1611

홈페이지 www.isbcc.or.kr

결제방법 방문접수-현금 및 카드결제 / 인터넷접수-계좌이체 (인터넷 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함)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0900 (예금주 : 성북문화원)

강좌별 개강·종강 일정

84기 봄학기 (3월 ~ 5월)

85기 여름학기 (6월 ~ 8월)

가을	월	화	수	목	금	겨울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3.04	03.05	03.06	03.07	03.08	개강일	06.03	06.04	06.05	06.13	06.07
종강일	05.20	05.21	05.22	05.23	05.24	종강일	08.19	08.20	08.21	08.22	08.23

84기 휴관일 5/6(월) 어린이날 대체 휴일

85기 휴관일 6/6(목) 현충일, 8/15(목) 광복절